朝鮮日報
夕刊
四日(土)
本紙朝夕刊二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少年朝鮮日報(日曜附錄)
朝光 (一月一回發行)
女性 (同)
少年 (同)
幼年 (同)

津浦線方面敵에對해 總攻擊을開始!
空陸軍呼應、唐官屯攻擊
目下大激戰展開中

【呂官屯四日發同盟至急報】我○○部隊는 津浦線唐官屯及馬廠附近에 集結蠢動中인 敵軍에對하야 四日午前六時半을 期하야 總攻擊을 開始하고 激戰展開中이다

【津浦線呂官屯四日發同盟至急報】○○部隊의 攻擊과 呼應하야 我空軍은 四日朝來 唐官屯上空을 襲擊하야 猛烈한 爆擊을 敢行하엿다

唐官屯集中攻擊

【津浦線劉官屯四日發同盟】○○部隊의 飛行機 ○臺는 四日午前六時半頃새벽비雨雲을 衝하고 唐官屯의 上空에 나타나 前面의 敵陣에 向하야 果敢한 爆擊을行하야 砲彈의 炸裂은 附近一帶를震撼시키고 黑煙濛濛하게 敵陣을 掩蔽하야 我地上部隊의 砲擊과 相俟하야 壯烈을 極하엿다

【津浦線劉官屯四日發同盟】劉官屯을 中心으로 附近의 殘敵을 掃蕩中이든 我○○部隊는 四日午前六時卅分을 期하야 全兵力을 다하야 唐官屯馬廠에 集結하고잇는 第三十七師 第三十八師의 敵에 對하야 總攻擊을 開始하엿는데 때마침 ○○根據地를 發한 我空軍은 銀翼을 連하고 敵上空에 나타나서 爆擊을 開始하야 砲聲은 殷殷히 天地를 울리며 壯烈을 極하야 敵의 大部隊는 벌서부터 動搖하고잇다

敵本據馬廠을爆擊敢行中

【劉官屯四日發同盟】○○部隊의 唐官屯爆擊에 繼續하야 我飛行機○臺는 떠서 午前七時지나 敵의 主力部隊의 本據馬廠上空에 飛來하야 果敢한 爆擊을 行하고잇다

大泉部隊、苦戰後에 堤部隊와連絡完成
察哈爾方面의戰鬪經過

【宣化三日發同盟】察哈爾作戰軍의 最○翼軍으로서 去二十日內蒙으로부터 古源에 兵을前進한 大泉部隊는 獨石口、崇口附近에서 支那軍을 擊破하고 二十三日에는 大平站으로나와 豪雨를 衝하며 潰走하는敵을 急追하고 二十五日에는 糧食彈藥이 全然缺乏하엿스나 肉彈으로써敵을擊破하고 다시察哈爾作戰軍航空部隊로부터 糧食彈藥의 空輸補給을바더 第二次進擊을 取하얏고 二十七日에는 靑邊口에잇는 約千五百의 敵을 夜襲하야敵의戰死傷四百四十餘名을 내이여이를奪取하엿고 潰走하는敵을 急追하야 二十九日에 宣化際城에 堤部隊의뒤를 조처入城하야 張北、張家口의 敵軍을擊破하엿는데 二十八日에는第一먼저 宣化로드러간堤部隊와의 連絡을完全히取하야 玆에兩部隊長은 感激의握手를 交하엿다

我兩部隊 ○○으로向發

【宣化三日發同盟】三日午前、午後에 亘하야 十河、大泉兩部隊는 支那兵에게 破壞되엇다가 目下日本軍의 손으로 運行되고잇는 平綏線列車로 ○○方面으로 向하야 勇躍出動하엿다

北平地方維持會 財政統轄機關設置

【北平三日發同盟】北平市의各種徵稅機關引繼를마친 北平市地方維持會는 三日午後의 會議에서 此等徵稅機關의 統轄機關과財政管理機關으로서 財務總管理處를 設置하기로決定하엿다 그初代處長에는 冷家驥를任命하기로內定되엿다

勇壯無比의 獅子林砲臺奪取戰

【上海三日發同盟】獅子林砲臺占據의 詳報는 三日겨우 上海에 齎來하엿는데 그勇壯無比한 皇軍의 活躍에는 듯는者로하야금 驚歎케하엿다 即淺間部隊는 三十日夜 强行軍을 行하야 途中 群集하는 敵을 擊退하면서 進擊을 繼續하야 一日 午後四時 獅子林砲臺로부터 射擊하는 迫擊砲、機關銃의十字砲火밑를 不顧하고 눈감작도안코 同砲臺前河前面의 크리크를渡河 敵前八百米의 地點으로부터 一齊히 突擊을 開始하야 尾上少尉及 柳澤少尉以下 ○○名이 前陣에 서 砲壘中으로부터 頑强히 抵抗하는 敵兵에 對해 突擊하야 同四時三十分드듸여 이를 占據하야 獅子林砲臺의 空中노피日章旗를揭揚한것이다

我爆擊에脅威 廣東飛隊從化로逃避

【香港三日發同盟】廣東軍飛行隊는我海軍航空隊의 果敢한 爆擊에脅威되여 여러가지 對策을考究中이든바 三日에 一兩日前에飛行隊司令部를 從化(廣東東北方約十料)로移轉하고 秘密히防空施設의 强化에 努力하고잇는것이判明되엿다

議會開院式에臨御 優渥한勅語를下賜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압서는 惶恐하압시게도 時局에對하사 기피 御軫念하압시사 第七十二議會開院式에際하야 左와如한 優渥하압신勅語를 下賜하압시엿다

勅語

朕玆에帝國議會開院의式을行하고 貴族院及衆議院의各員에告한다

帝國과 中華民國과의 提携協力에依하야 東亞의 安定을 確保하야써 共榮의實을擧함은 朕이 夙夜軫念하야 마지안는 바이다 中華民國이 기피帝國의 眞意를 解하지못하고 함부로 事를構하야마침내 今次의 事變을 보게되엿슴은 朕이 遺憾으로하는바이다 바야흐로 朕의 軍人은百難을 排하고그 忠勇을 다하고잇는바 이는 오로지 中華民國의 反省을 促하야 速히東亞의 平和를 確立하고저함에 不外하다 朕은 帝國臣民이 今日의時局에 鑑하야 忠誠奉公、和協一心하야 贊襄서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기를 望한다 朕은 國務大臣에命하야 特히 時局에關한 緊急한 追加豫算案及法律案을 帝國議會에 提出시키엇다 卿等은 잘 朕의意를 體하야 和衷協贊의 任을다하기에 努力하라

追加豫算案正式決定 今日臨時閣[illegible]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四日閣內에서 臨時閣議를開하고 支[illegible] 院式에압서 午前十一時二十分 散[illegible] 提出할手續[illegible]하엿다

陸軍省에 恤兵部를獨立

【東京電話同盟】支那事變發生以來 國民의 熱誠의 表徵인 陸軍의獻金은 一千萬圓을 突破하[illegible]야 當局을 感激케하거니와 皇軍將士慰問金兵獻金은 續續殺到하는 現狀임으로 陸軍省에서는 其事務取扱을 敏活히하야 銃後의熱誠을 迅速히現地에 傳達하기爲하야 今回官房內에잇서 恤兵係를 擴大强化하야 恤兵部로獨立시켜 恤兵官을 設하고 取扱에 萬般遺漏엄시하기로되여 三日附通牒을發하야 近近實施하기로되엿다

察哈爾省의 明朗新政權樹立
今日成立式擧行

【張家口三日發同盟】察哈爾省各界有力者代表百餘名은 三日協議한結果 南京政府로부터 分離獨立하야 明朗新政權을 樹立하기로決定하고 마친내 四日省察哈爾省政府에서 成立式을 擧行하기로되엿다 그리고 新政權의 正式名稱은 察南自治政府라고하기로 決定되엿다

【張家口四日發同盟】察哈爾省政府는 去二十四日省政府主席劉汝明以下全要人이 逃亡潰滅하야 省內十縣의治安財政金融交通行政은 全然放置되게되엿스므로 二十八日察哈爾省二百萬民衆의 依하야 治安維持會를 組織하고財政金融交通三委員會를創立、各委員會로부터 選出한九名의委員에依하야 察哈爾省內의 政治를代行케하여왓는데 二日各委員會代表가參集하야 協議한結果 民衆多年의要望인 明朗樂土를建設하기爲하야 南京政府로부터 分離獨立하야 察南自治政府를 創設하기로決定하고 四日正午察哈爾省政府에서 盛大한成立式을 擧行하게되엿다 그런데 各界代表의選擧에基하야 財政金融委員에 杜運宇 交通委員于克顏兩氏가 就任하기로決定 五日부터 政務를開始하기로되엿다

衆議院本會議

【東京電話同盟】開院式도無事히終了한 四日衆議院本會議는 午前十一時四十分 開會되여 小山議長 議長席에 起立하야 開院式에下賜하압신 勅語에對한 奉答文의 議事에 드러간다는宣言을하고 起草委員을 指名하고同五十分休憩하엿다

常任委員長 政友會人選決定

【東京電話同盟】政友會에서는三日午後四時本部에서 臨時總務會를열고 常任委員長의 人選에關하야協議한 結果 左와如히 決定하엿다

全院委員長 匹田 鋭吉
建議委員長 田中 亮一
請願委員長 菅野善右衛門

그리고 勅語奉答文起草委員長은 最初濱田國松氏로 內定되엿스나 事情에依하야 山本悌二郞氏를推薦하기로變更되엿다

我海軍航空隊○○機 閘北敵陣地를爆擊
常熟의密集部隊도空襲

【上海四日發同盟】閘北方面의 敵은 增援部隊를얻어 新陣地를構築하고 虹口日本人居留地點에對하야 盛히 砲擊을行함으로 我航空隊○○機는 四日午前七時頃을 期하야 同方面의 敵[illegible]

【上海四日發同盟】[illegible] 出現하고[illegible] 한 ○○臺의 我海軍機는 浦東南市、閘北、眞茹方面을 偵察하고 繼續하야 同七時四十分頃부터 北停車場閘北商務印書館方面의 敵陣地에對하야 果敢한 爆擊을行하야 多大한 損害를 與하엿다

【上海四日發同盟】我海軍航空部隊○○機○○機는 三日常熟을 空襲하야[illegible] 部隊에 對하야 爆彈多數를 投下하야 打擊을[illegible]

浦東閘北方面 徹底的爆擊

【上海四日發同盟】第○艦隊報道班午前九時半發表=海軍航空隊는 浦東及閘北方面의 敵에對하야 昨日午後에 繼續하야 今日早朝까지 徹底的으로 爆擊을 實施하야 浦東의 金家豊鎭及閘北北停車場附近의 敵은 大痛落을 示하고잇다

交戰實로七時間 事變以來의大激戰
浦東敵과我艦艇의砲擊戰

【上海三日發同盟】三日午前十一時지나서부터 開始된 浦東의敵砲兵陣地와 江上의 我艦艇과의 砲擊戰은 日沒頃까지實로 七時間에 亘하야 繼續되엿는데 虹口中心地帶로 落下한 爆彈數及交戰時間으로부터보아 事件發生以來의 大激戰이엿다 敵砲兵陣地는 米國軍艦어거스타、佛國軍艦 레몬트·비케號等의 背後에숨어 我艦砲의 射擊을 回避하면 我砲彈은 곳右兩艦가까히 落下함과가튼 戰法을 取하야 我方의 砲擊을 困難케하고잇다 또操法의未熟인지 故意인지 支那軍의 砲彈은 佛租界及舊租界의 數個所에 落下하야 外人側에게도多數의死傷者를 내게되엿다 一回에 亘한 支那軍用機의 租界空地에의 爆彈投下[illegible]과가튼것은 故意로英米의 權益을 目標로한射擊放火等으로보아 이며 第三國의干涉을 誘致할과가튼 企圖를가진것이 明白하게 되는데 如斯한卑怯한 戰法에는 오히려諸列國은 憎惡하며마지안는다

尾上少尉以下 豪膽한敵前架橋

【上海三日發同盟】獅子林砲臺攻略戰의 先陣을 바든 淺間部隊의 尾上少尉 河野上等兵以下五名은決死、敵陣으로부터 飛來하는 彈丸中에 勇敢하게도 擧壘前크리크의 架橋를 完成하야 部隊의突擊의 端緒를 만드는데 모도 微傷도負하지안코悠悠하게 歸隊하야 全軍의士氣를感動시켯다

粵漢鐵路急行 一日一回運轉

【香港三日發同盟】粵漢鐵路는從來一週二日의 急行列車를 運轉하고잇섯는데 最近軍需品旅客輸送이 增加하기때문에 到底히 收容할수업게되엿스므로 一日一回運轉하기로되여 近近實施하기로되엿다 그리고廣九鐵路는 昨日의颱風으로沙田 大浦間의線路는 破壞되여 그復舊까지는 十日餘를要할것이라고한다

蘇支不可侵條約에 內外反對가相當

【上海四日發同盟】蘇支不可侵條約에關하야 支那一部要人間에 政治社會組織을 달리한 國家와如斯한 條約을 締結한것은 將來에적지안흔 禍根을남길거라는것이란 見解로부터 反對的批判을 加하는者不少하자 또一部外人間에서는 支那가 容共을一策으로하야 蘇聯과 該條約을 締結치아니치못하게된理由의 一半은 認定할수잇스며 國民政府의動向이 容共으로 기우러지고잇는 一證左에 불리엇슴으로 오히려 同情을잃케되는 結果를生할것이라는 見解가行하고잇서 內外로 反對論이 擡頭하고잇스므로 國民政府는 狼狽하야 三日非公式聲明을 發表하야 國民政府는 容共이아니라는言을 述하엿스나 이는國民政府가 今回의措置에 內外의反對가 相當히强硬한것을 反映한것으로서 注目되고잇다

獨政府公式發表 무伊首相訪獨에關해

【伯林三日發同盟】뭇솔리니首相이 히틀러總統을 訪問한다는風說에對하야 獨逸政府는 今日까지 一切沈默을 직히고잇섯는데 三日午後左와如한 公式聲明을 發表하고 뭇솔리니首相의獨逸訪問을 確認하엿다

伊太利首相 베니토·뭇솔리니氏는 히틀러總統의 招請을受諾하고 九月下旬 獨逸을訪問하야 히틀러總統과 會見하기로되엿다

히틀러總統이 一九三四年五月 베네치아에 赴하야 뭇솔리니首相과 會見하얏以來 滿三個年餘 뭇솔리니首相이 「國外不出」의 鐵則을 깨트리고 終에兩獨裁者의 歷史的會見이 行하게되엿이다 때마침 歐洲에잇서 西班牙를 圍繞한 國際政局은 益益 複雜多難하게되고 極東에잇서서는 日支紛爭을 契機로하야 蘇聯의 暗躍이 더욱露骨化하고 잇는此際 獨伊兩巨頭의 會見의 結果는 國際政局에重大한轉機를 明할것이라고 注目된다

宣撫班을派遣 全省治安을確保

【張家口三日發同盟】察哈爾省治安維持會及財政金融委員會는 察哈爾作戰軍의 指導下에 同省治安回復에 努力하는 一方 宣撫班을 各縣下에 派遣하야 全省의 治安維持及財政確立에 邁進하기로되엿다

八面鋒

◇地中海에서는 英船의 被擊이 頻繁。
◇船籍을 몰른다고 英國은 海賊으로 認定하고 擊沈을 命令했다고。
◇그英國에서는 어떤 警備이 잇슬때마다 伊太利가 神經을 過敏히한다고 伊太利 所爲라고 도斷定。
◇에디오피아問題、西班牙革命問題로 英國이 妨害햇스니 伊太利가 包怨할즉도 한일。
◇가까히 獨伊兩巨頭가 會見하리라하니 英佛蘇를 相對로 獨伊가 接近할지도 몰라。
◇如何間 世界가 人民戰線對國民戰線으로 對立된것만은事實。
◇金融梗塞이 날로 甚하야 三日 一日當에만 不渡手形이 十三件이라고
◇어서 緩和할 手段이 緊要。

今日少年朝鮮日報發行

中村廣東總領事 近近歸國

【香港三日發同盟】廣東總領事館을 撤하야 香港에 滯在하야 殘務를 整理中이든 中村廣東總領事는 本省의 歸朝命令을 接하고 近近香港出帆의 淺間丸으로 歸途에 올으기로되엿다

上海戰의運命을賭할 敵軍總兵力十五萬
中央軍主力二十個師!

【上海三日發同盟】軍當局의 發表에依하면 上海方面의 敵은 最近에 至하야 後方部隊로 續續交代케하야 新參者로써 頑强히 抵抗하고잇는데 蔣介石은 上海附近을 大會戰으로써 國民政府의 運命을決定하는것이라고認定하야 이方面에 中央軍의 主力을 蒐集하고잇다 調査에依하면 敵兵力은 二十個師十五萬에達하며 그配置는 如左하다

第一 嘉定劉河方面
이方面은 第十八軍長 羅卓英을 總指揮로하고 第十一、第十四、第六十七、第九十八、第九十八의五個師를配置하엿다

第二 吳淞、江灣、閘北、虹橋方面
張治中을 總指揮로하고 三十六、六十一、八十七、八十八의 各師를配置하엿다

第三 浦東、南市、嘉興中心으로한 滬杭鐵道沿線
劉建緒를 總指揮로하고 十五、十六、十九、六十三(湖南軍)五十五、五十七(廣東軍)의各師를配置하고잇다

第四 總預備隊로서 第一、第十一、第十二 第百十二各師

또此等第一線部隊의總司令은 顧祝同으로하고 總司令部를 蘇州에 두엇는데 陳誠은 蔣介石의 代理로서 京滬間을 頻繁히往來하야 中央의命令을 傳達하고잇다

支那의暴戾 膺懲外無途

【上海三日發同盟】三日午後八時半○艦隊報道班發表=午後二時頃 浦東側及閘北地區의 支那軍은突然 共同租界에對해 榴散彈迫擊砲로써 猛射하여와서 我總領事館에서는 兩名의 重傷者를 내이고 虹口地區에는 多數의 重輕傷者를 내엿스므로 我艦艇海軍航空隊는 敢然反擊을加하야 이를制壓하엿는데 支那軍의 砲擊은 明白히 無辜의 非戰鬪員을 目標로한것이다 長住民의 居住하는地點이오 또한 外에는形言할바업는바로 正義와 東洋平和를爲하야 敢然軍을이르킨 帝國海軍은 特히 報復手段을取하는 小心的行爲를 取하지안흐나 一層膺懲의手段을取함은 不得已하다고밋는다

舊東北軍于學忠部隊 膠東防務를擔當

【靑島四日發同盟】舊東北軍于學忠部隊는 高密、膠州附近에 集結하고 稅警團과 協力하야 膠東의 防務를擔當하기로되엿다

蔣招電으로 李濟琛等北上

【香港三日發同盟】中央의要職에 就任하기로 內定된 廣西派巨頭李濟琛은 蔣介石의 招電을受하고 兩三日中에 廣東經由北上하기로 決定되여 陳銘樞 蔣光鼐等은 이미再昨日廣東에到着하야 李濟琛과 同道北上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廣西의增援部隊도 粵漢線으로 近近北上할豫定이다

敵의夜襲을擊退!

【上海四日發同盟】○○艦隊報道班午前九時發表 陸戰隊方面 本曉北方陣地에 對해敵의 夜襲이 잇섯스나 交戰約一時間으로 擊退하엿다 我에는 損害는업다

民政黨의各委員長

【東京電話同盟】民政黨에서는三日 豫算委員長候補者로 勝正憲氏를 決定하고 其他의 委員長은 左와如히 內定하엿다

▲決算委員長 菊池 良一
▲懲罰委員長 岡本實太郞
▲事業資金統制法案 川崎 克
▲船舶管理法案 秋山 耕藏

靑島官民 最後의撤退

【靑島四日發同盟】大鷹總領事以下靑島總領事館員警察官及外務省邦人一同은 四日正午原田丸에乘船 門司로向하야 最後의 撤退를하엿다 當日午前九時總領事館에大鷹總領事以下最後까지 머물러잇든 殘留邦人은 모두悲壯한 面貌로參集하야 鄭重한 國旗降下式을行하고 다음君代合唱聲이 눈물겨운大鷹總領事의 離別의人事가잇섯다 如斯히 總領事館의門은굿게閉鎖되고 一同은最後의 撤退船原田丸에 乘船하야 二十年間同胞의 血汗으로써 構築한 靑島[illegible]

辭令

九月三日附發令

遞信書記 小川 好一
任朝鮮總督府遞信副事務官
敍高等官七等
六級俸下賜
命釜山遞信分掌局保險監督課長

遞信書記 森田 守正
任朝鮮總督府遞信副事務官
敍高等官七等
七級俸下賜
命京城鐵道郵便局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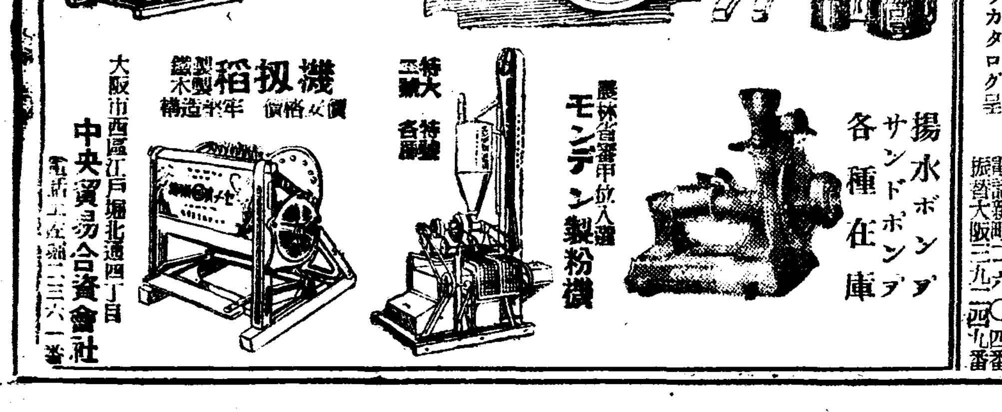
遞信書記 中島 貞雄
命光化門郵便局長

遞信副事務官 兒野 繼藏
免釜山遞信分掌局保險監督課長兼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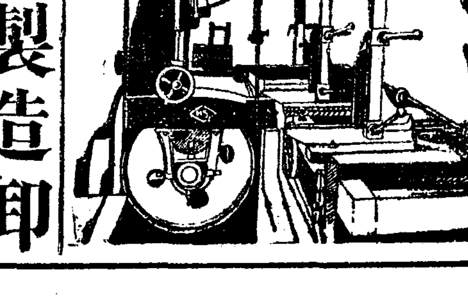
人事·集會

▲濱田虎熊氏(京城府會議員)北支駐屯軍慰問出發人事次來社
▲李升雨氏(同)同上
▲大野史郎氏(同)同上
▲林稻雲氏(本社監查役)昨日入京

機綿製牌鹿 各種鐵製 木製あり 新古綿打機として最適當 構造堅牢
機動發油重灌ウエム 取扱簡單一構型 重油完全燃燒 新型五—六馬力 八—十馬力
機動發炭木 適最用工農·材製·米精 5馬力より10馬力迄 木炭一貫目で石油二升分の出力あり
機扱稻 鐵製 木製 價格低廉 構造堅牢
モンデン製粉機 農林省御推奬 特大 各種
揚水ポンプ サンドポンプ 各種在庫
大阪市西區江戶堀北通四丁目 中央貿易合資會社 電話土佐堀二三六一番



各種製材木工機械專門製作 調帶鋸及五具類製材用品 首勵大商
機械ト工具製造卸 大阪市西區立賣堀北通四丁目 八木機械工具合名會社 電話新町二六〇四番 振替大阪三九二四九番 商店工場二报リカタログ呈
細田商會合資會社 大阪市西區松島町二丁目二四



(カタログ新版進呈)
全鮮에서 놉흔名聲과함께 品質優良으로風靡하는 ゼスター 高級萬年筆을卸廉價提供 大阪市北區都島本通四丁目十二 澤井商會製作所 電話東七九〇九番 振替大阪二一三一六四番

人絹綿布端切各種卸 ◎セスリン綿ネル、綿ポプリン本セル金巾、金綾、朱子、人絹 新規小賣開業者에게는懇切指導합니다 大阪市南區瓦屋橋東詰大阪局前第二三號表 (價表申込次第送呈) (切手) 匡 津村合資會社 電話南二四八九番 振替大阪二八三三番

屋問金現 オーバキ揃 冬物品揃!!! ●商報進呈(御押印店章) ●御來阪時에來店希望 ●御通信は日本文で 大阪市東區島町壹丁目十二 株式會社 圓山商店 振替大阪57429

소면、우동冷豆腐 其他여러가지반찬에 (고초가) 今新興かじ 月美人印かじょうゆ 製造本舖 黑川與兵衛商店 大阪 : 天滿

自稱"東北抗日軍" 甲山郡下를襲擊

卅四名이出現、金品을强奪

惠山鎭討伐隊出動

【咸興支局電話】 삼일오후여섯시삼십분쯤에 함남갑산군운흥면중평리(甲山郡雲興面仲坪里) 촌락에자칭 동북항일군(東北抗日軍)이라는 갈색양복을입은 반만군삼십사명(其中一名은 女子)이나타나서 『모-젤』 권총등으로 동리사람을위협하고 현금일백오십원 사금이백원 기타의복을 빼아서가지고 오시천리(五是川里)방면으로 갓다한다 그들이 떠날때에 우리가왓든일을 그후아홉시전에 당국에알리면 너이들을 전부총살하겟다고 위협하고 도라갓는데 이급보를바든 혜산(惠山)경찰서에서는 오후열한시반경에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려고출동하얏다 전기반만군은 아직조선안에잇는것갓다고한다

【惠山鎭支局電話】 삼일 오후일곱시 함남갑산군운흥면중평리(甲山郡雲興面仲坪里)금산사무소에 권총을가진 비적삼십사명이 침입하야 금품을강탈하여갓다 이급보를바든 소관혜산진(惠山鎭)경찰서에서는 곳전서원을 비상소집하야 현장에 출동하면 수비대와 밋대안장백(長白)현 군경과도 밀접한 련락을하야 물샐틈업는 수사진을펴고 비적을수사중이다

仁川滯留者五千人 歸鄕은當分間無望

英國客船과의交涉도不如意 進退維谷의支那人

총독부에 드러온보고에 의하면귀국할 선편을기대리고 인천(仁川)에 체류하고잇는 지나인은삼일현재 약오천명에 달하는데그들을 수송할기선은 리통호(利通號)와 광리호(廣利號)두척으로 알선결정하야 이두척의기선은 지난이일이후 리통호는인천에서 광리호는 신의주에서각각천여명식 지나인을 실어가지고출범하얏스나 금후로 부터다시출범하기 어려운형세가 보이리가업게될 모양이다 그내용인즉 전기리통호와 광리호는 모두 일지인공동 경영으로 선장이 일본인인관계로 간신히 북지일대에 기항할수가잇서 그동안 수송하야왓스나 위해위(威海衛)와지부(芝罘)지방의 형세가극히위험함에따라 군부에서도지나인 수송기선을 청도(靑島)이외의 항구에는 기항하지말라고지정하엿스므로 청도에한하야만지나인의 승선을 허락하야 왓는데 이들지나인들은 청도로간다고 배를타고서는 도중해상에서 위해위나 지푸로가자고 선장기타선원을 위협하는등 소동을 이르킨일이 수차잇서서 막대한 곤난을 밧게되엿스므로금후의 출범은 자못 어려우리라는것이다 그리고 신의주(新義州)이융양행(怡隆洋行) 소속의영국기선은 총독부알선에 의하야 출범하랴하얏스나 여러가지곤난한 사정이 잇다하야 출범을 중지하얏슨즉 금후지나인의귀국은 전반적으로 자못 난관에 봉착하얏다고한다

仁川經由歸還者만 二萬五千을突破

日支事變後의在留支那人動靜

사변에 경성주재지나총령사관에서 아라보면 이번사변으로말미아마 조선안에서 살든지나인의 귀환자는 인천(仁川)을 경유한것만으로 지금까지 약이만오천명이며 평북지방에 살든사람들은 대개안동현(安東縣)에서배를타고 도라갓는데 그수효는아직 자세치는 못하다한다 조선안에 재류하는 지나인은 총계칠만명인데 귀환한사람은 아직 반수에도 달하지못한 모양이며 그대부분은 로동자층에소속한사람들이고 경성 인천지방의 큰요리점과 면포상(綿布商)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냥영업을하고잇는터이라한다 그러고 그총령사관원 원유당(袁酉棠)씨의 말을드르면 본국정부로부터 아모명령도 업는터이고 또한조선안에잇서서 하등위험을 늣길일업시 안전한형편이므로 조선재류지나인에 대하야 도라가고시픈 사람은도라가도조타고 자유의사에 맛기고결코 도라가라는 명령은할일은업다한다

것이업섯는데 이번에 이것을 발행하게되여서 리용자에게 편리하게되리라한다 갈은 한창에 사

大野政務總監 八日夜全國中繼放送

대야정무총감은 지난이일라디오방송을 할예정이엿스나 형편에따라 오는팔일오후일곱시사십분부터 삼십분동안 대화정(大和町)관저에서 DK를통하야 전국중계방송을 할터인데 내용은총후의적성을 중심으로 시국에분기한조선민중의 활동을 전일본에소개할것이라고한다

貴重品小包집표發賣

철도국에서는 이번에 소액의지폐(紙幣)기타 소화물로 취급하는 귀중품수송용(貴重品輸送用)봉투를지정하야 일반집표와 마찬가지로 정거장매점(賣店)과 조선운송회사직할점(直轄店)밋그

北支一帶食糧輸送에 非常對策을講究

外務部囑託을緊急現地로派遣

천진(天津)을 중심으로 북지일대는 기차기선의 수송기관이 거의 두절상태에 빠저서 일반거류민의 식량기타식료품공급에 막대한곤난을 밧고잇스므로 총독부외무부에서는 응산촉탁(應山囑託)을북지에파견하야 물자공급사무에 종사케하기로되여삼일오후삼시오십분발렬차로 출발하얏다 이라는데 금후 삼주간동안 특별대책을 총독부에서강구하야주지아니하면 북지일대의식량문제가 우려된다고한다

玄化寺九層寶塔 破壞者는누구?

落雷? 盜掘黨의所爲인가?

開城署犯人을嚴探

【開城】 개성서 상거약이십리-령남면 현화리현화동(嶺南面玄化里玄化洞)현화사(玄化寺)·절터에잇는 구층석탑은(九層石塔)지금으로부터 구백여년전 고려조초엽당시현종(顯宗)이 그의부군이되시는 추존안종(追尊安宗)과헌정왕후(獻貞王后)명복(冥福)을빌기위하야 건조한것으로 조각이극히 정교해서 이래국보(國寶)로 보존해오든 유서깁흔 고적이다 그런데이탑을 완성하기까지에 삼년이걸녓다는 전설과가티 풍우성상근천년이되도록근삼십척의 노흔탑이 자세조차조곰기울지안엇스며 어듸한곳 파손된 험점이업시 보존되여오든것이 지난 이삼주일 최하층탑인 반석(盤石)(幅四尺、高二尺)이반쪽에 쪼개질듯 금을가르고깨여저잇슴을 부근사는 농군들이발견하게되엿다 동시에깨여진 돌틈으로 식기(食器)와 식기상사가튼 진귀한비장보물을 발견하게되엿는데 그이튼날 이것이고만 도란을당하고말엇다 이런사실을 지난이일 오전십시경에야 탐지한 개성서에서는 박사법주임이 『박물관장』 고유섭(高裕燮)씨와가티 형사대를 대동하고 현장에 급행하야 세밀한조사를 거듭햇스나 화약(火藥)을 사용한 물적증거도업서 혹시 돌에 벼락이 친것이아닌가 추측도되는데 의혹을 풀수업는 경찰대는 근촌각처에 비상진을 느리고 범인을엄탐중이라한다 (사진은 玄化寺九層石塔과 ×표가파괴된곳)

開城博物館長 高裕燮氏談

탑을세울때는 그속에 진귀한보물을 비장하기위함입니다 따라 이유서아득한 국보의석탑에도 물론귀중한 진품이잇섯스리라밋습니다 혹시 이것이 어느 『도굴당』의소행이 아닐는지?

三百二十萬圓債權 捧收는거의無望

七十萬圓을回收하고도남은이巨額

華商去來者大打擊

경성、인천(仁川)、평양(平壤)、신의주(新義州)、함흥(咸興)등으로 개도시를 중심으로 재류하야잇는 지나상인으로부터 내선인거상들이 회수할외상갑 (선물계약도포함)은 실로삼백구십만원에달하는데 저간총독부외무부에서경성주재중화민국총령사관에 교섭하야 그회수에노력한결과 약칠십만원은 회수하엿스나 나머지 삼백이십만원에대하야는 중화민국 범한생(范漢生)총령사가방금선성되엿슴으로 반신불수에다가안혼증(眼昏症)으로 압록보지못하는상태이므로 지금형편으로는도저히 교섭회수할 도리가업다고한다 그들외상갑을지고잇는 지나인들은 대개귀국을 준비하고잇스므로 거래관계 내선인거상들은 극히초조하는중이데 그중에 약삼백만원은 구월십일까지현물인도하기로한 소위선물(先物) 계약이므로 이것은 현물을인도하지만 아니하면 그다지큰손해는 업스나 나머지 이십만원은 순전한외상갑시므로 회수하지못하게되면 전연 결손을보게된다고한다 전기선물계약에대하야도 비록 전연결손은 아니라고하나 계약기간인 구월십일까지는 삼백만원어치 상품이도착될터이므로 시세관계와 처분물등관계로상당한 손해를 면치못할형편인데 그피해자는 만몽모직회사(滿蒙毛織會社)경성출장소의 선물계약 이십이만원을 필두로내선인 각무역상들이라고한다

전이며 보창지뒤장을 첨부하기로 되엿다

장사에失敗코 金釵强奪질

삼일오후 세시쯤에 연희장(延禧莊)주택지 뒷산에서 부내 행촌정(杏村町)이백십번지 김정숙(金貞淑)(二五)이가 괴한에게 습격을 당하야 시가백여원의 금비녀를 빼앗기고 말엇다 이급보를바든 소관서대문서에서는 곳부내 요소에 물품수배를하엿든바 오후열시쯤에 동촉멀리 떠러저잇는 신정(新町)보전당포에 문서원에게 체포되엿다 그는 비녀를 가지고왓든범인이 서대문서원에게 체포되엿다 그는 부내 의주통(義州通)이정목팔십번지에서 『다와시』(술)장사를하는류궁두(劉鹿斗)(三)로 작년십이월에 결혼을하고 부채가만하서번민하고잇든중 최근에는 일본내지에 주문하엿든『다와시』가서울에 도착하여잇섯스나 차즐돈이 업슴뿐더러 전등료를 밀려경전(京電)에서 불을꺼버리자 발작적으로 범의가생겨 가든짓을 한것이라고한다

外語로된[illegible] 國語로[illegible] "팀"은[illegible]

[illegible]務局서研究發表

총독부학무국에서는 일찍부터 운동용어(運動用語)를 국어로통일하고저 연구중이든바제신설회조선신궁봉찬체육대회의개최를다음과가튼 개정용어를 사용하야 발표하엿는데 경기의실제사용어의국어화에관하야도 떠욱연구실시하기로되엿다

【改正用語】

아마[illegible]	[illegible]技者 素人競技者
팀	團體
푸그람	番組
庭球코-트	庭球場
토나멘트式	勝拔式
유니폼	制服
씽글스	單式
따볼스	複式
三셋트매취	三回戰合
룰	規則
그라운드	運動場
公認	公認球
클럽	倶樂部
포어	四人乘
漢江코-스	漢江漕路
미네저	委員
그라이더-	滑空機
렝킹	順位

뉴스寫眞配付網擴張 日蘇關係를宣傳

時局認識과一般對策

총독부에서는 사일오전 십일시 정판문서과장으로하야금 시국인식선전에 관하야 다음과가티 발표한바잇섯다 ▲총독부에서『총후조선』(銃後朝鮮)이란 활동사진두권을 만드러가지고 각도에보내어 전조선 방방곡곡에 순회영사케하야 시국의 철저한선전과 인식을주도록할터이다 ▲종래 시국에대한 『뉴-쓰』사진을 전조선이천사백곳에 게시하야 시국을 선전하야오든바 각지방관계당국의 요구에 의하야 금후약삼천곳에 매월오륙차식 시국『뉴-쓰』사진을 가려붓처서 주민기타 통행인에게시국인식의철저를기하기로 되엿다 ▲소지불가침 조약(蘇支不可侵條約)에대한 해설단행본을조선군사후원련맹(朝鮮軍事後援聯盟)으로하야금 발행케하야 전조선 각지에 널리 배부하야 소련과지나의관계를 선전할터이다

市內小學生들 慰問狀과獻金

부내 공립일신소학교아동일만오천이백은 위문장(慰問狀)일만사천구백장과 국방비 일천일백구십사원십이전을 모아서 사일에 경성부청에 바첫다한다

鍾岩町强盜 別途로猛搜査

新堂町强盜와는相異

지난달이십구일과 삼십일 련겁허이러난 동대문서관내의강도사건의범인 리창웅(李昌應)(二七)이가 본정서에 체포되는동시에 신당정(新堂町)호떡집에 들어간강도사건은 해결되엿스나 종암정(鍾岩町) 거리에서 생긴사건은 그가완강히 부인할뿐아니라 그동안수사결과로도 가튼자의범행이아닌것이 거이확실하게되여소관동대문서에서는 그범인체포에 수사진을꼬시히고잇는동시에 전기 리창웅의공범자체포에 도노력하고잇다

危險한電車跳下

사흘날밤열시 이십오분경 종로오정목 사십이번지에 사는 리영진(李榮進)(六)이가 이십사호전차 운전대에서 뛰여내리다가 쓰러저뇌진탕을이르켜 대학병원에 담어 갓스나 생명이위독하다고 한다 운전수편의득(片王德)(二七)은 뛰여내릴야는것을 제지하지도안코 급정거도하지안흔것으로 처벌을 밧기로되엿다

妓生治家中의 橫領小使逮捕

기보 조선방송협회소사 주동균(朱東均)(二〇)이가 일일오후두시쯤에 식산은행에 예금하라고 마튼돈 오백이원을가지고 어대론지 도망하고만사건은 서대문서의 수배로 부내각서원이 그의 행방을 찻고잇든중 삼일오후일곱시쯤에 종로이정목파출소순사가 락원정(樂園町)에사는 종로권번기생 문자옥(文玆玉)(二〇)의집에서 주를체포하야 사일서대문서로넘겻다 주는 문자옥에게 마음을빼앗겨서 그돈오백원을가지고 이미 기생의집에서놀고 또다시 백미두섬 장작금시계등으로 이백여원을소비하야잇섯다고한다

中等柔道開幕

留學生武道會主催

中東軍、金泉을一蹴

東京留學生武道會主催의 第九回 全朝鮮中等學校柔道大會는豫定과가티 四日午後一時二十分부터 鐘路靑年會館에서 昨年度優勝校인 中東學校를비롯하야金泉高普、普成、大東、中央、培材、徽文等의 七個校(大邱啓聖不參)選手의 入場式이잇서 會長李克魯氏의 開會辭가잇섯고 武道會 委員長 吳世億君의 人事、同武道會功勞者 李景錫(朝鮮研武館)張樑(靑年會體育部)崔在城(前委員長)吳滄暇(平壤)李鼎氏와功勞團體의 靑年會柔道部 朝鮮研武館 東亞日報等三團體를各表彰하는意味로相品을贈呈한後 玉寯珍、李貞根兩氏의 祝辭에뒤이여 中東學校로부터 優勝旗返還이잇섯고 李東壽君의審判에對한注意說明이끗난後 參加選手一同을代表하야 中東主將閔援植君의 宣誓文朗讀이 잇섯다 그리고 當日各校職員은 다음과갓다

【第一回戰】

【中東】勝3-0【金泉】

△閔援植(先鋒)徐正容△

○鄭鳳紀……白三出×

○柳鎰茂……金鎰培×

△申永燮……高在鳳△

○崔正洙(大將)宋柱植×

(審判=李東壽君)

延專主催中等庭球 十月八·九日로延期

延專主催의 第八回全朝鮮中等學校庭球大會를 九月二十四日、二十五日에 延專코-트에서行할豫定이든바 事情에依하야 十月八日과九日에行하기로 延期되엿다 따라서 申請期도 九月二十五日까지로 延長되엿다 그리고 同校主催 第十五回全朝鮮中等學校陸上競技大會는 九月二十三日에 開催할터인데 參加希望校는 九月十三日까지 申請하기를바란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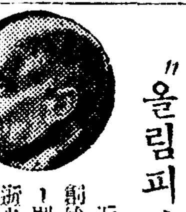
鐵道局運動中止

鐵道局友會運動部에서는 龍山에서 例年擧行하는 秋季各支部對抗野球及庭球大會는 時局關係로 今年은 中止하기로하고 其他各種運動競技等도 當分間一切그만두기로 決定하엿다한다

職業拳鬪來七日에

延期中이든 金恩聲君(光山)對露人『잔소니』君과의 十回戰을메인에벤트로한 職業拳鬪戰은來七日 午後五時부터 京城運動場特設링에서擧行하기로되엿다한다

"올림피아"에 쿠男爵의遺骸



近代올림픽의 創始者『비엘·쿠-벨탕』男爵이 逝去하엿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男爵은일즉이千八百九十二年(明治二十六年)十月에 巴里의『솔본느』鬪技場에서 沿沿數時間동안 懸河의 熱辯을 吐하야 古代希臘에서行한 올림픽大會의 再興을 高唱한바잇섯고 當時 佛蘭西의 學校에 스포-츠精神을 熱心이 鼓吹하야 千八百九十四年 六月에는 各國代表者를 巴里에 招集하야 協議한後 千八百九十六年에 希臘의古都『아젠스』에서 第一回를 開催하야 四年만에一次式 各國에서 擧行되여 第十二回를 東京에서열게되엿다 쿠男爵의 遺骸는 遺言와가티 第二의 故鄕인 記念의땅 希臘『올림피아』에埋葬하고 墓碑에는 스포츠와올림픽에 一生을바친 頌讚의金文字를刻하여 기리기리 保存하기로되엿다(寫眞은 故쿠男爵)

神宮競技出動 選手車賃割引

鐵道局에서는 朝鮮體育協會主催의 第十三回 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 出場選手에 對하야 旅客運賃을 二三等모두 三割引으로取扱하기로되엿다 割引區間은 鐵道局線各驛및朝鮮內各鐵道連帶驛으로부터 京城驛까지 往復이며割引期間은다음과갓다 ▲水上大會는 來六日로 부터來十二日까지 인데 通用期間은車票發賣日로부터 來二十日까지이고 ▲陸上大會는 來六日로부터來十七日까지인데 車票發賣日로부터 來二十三日까지通用하게하기로되엿다

天氣豫報

豫報 今夜와明日은 흐린다

昨日最高	二七度八
最低	一四度八
今朝最低	一六度四
今日正午	二五度六

民衆保健運動의提唱!

保健誌無料送呈

弊社에서는 去六月中 朝鮮各地新聞을 通하야 弊社의 過去現在를 論하고 그趣旨를 宣明한同時에 現下 우리社會의 緊急한運動의 하나인 民衆保健運動을 提唱하엿다。

그것은 一社會의 文化發達과 民度의 向上이 반드시 그社會民衆의 保健과 衛生思想向上을 前提로하야 비로소 達成할수잇기때문이엿다。

換言하면 그社會民衆의 血管속에 우렁차게 循環하는 血液 機敏하게 作用하는神經 그리고 駿足鐵腕 이 모든 健康의閃光이 빗나는後에야 비로소 潑溂한生命力을 가지고 偉大한 經綸을 實行할수잇는것이다。

이民衆保健運動達成에는 二種의 方途가 有하니 其一은 醫療機關의 擴充이며 其二는 民衆衛生思想의 啓發이다。비록 完備된醫療機關을가진 社會일지라도 이를 利用하는 民衆의衛生思想이 發達되여잇지안흐면 決코 그使命의 完全을 期할수업는것이다。

더욱 昨今과갓치 健全한 衛生思想發達을 阻害하는 各種廣告로써 信할수업는 藥品의 簇出은 우리民衆保健에 밋치는 弊端이야말노 實로 甚大한바 잇슬것이다。

이에 弊社에서는 우리民衆의 健全한 衛生思想發達을 目的하고 그實行의 第一策으로 柳韓保健과 家庭治療寶鑑 數萬部를 發刊하야 一般民衆에게 無料配布할準備가 完成되엿스니四海諸位는 沛然 이運動에 共鳴協贊하실줄 信하며 또한 此保健誌는 送料三錢切手를 붓처서 請求하시면 無料配布하니 多數請求하시기를 바란다。

京城府西大門町二

株式會社 柳韓洋行

支店 上海·大連

京城府光化門郵便局正門越便

新築落成開業 高麗ホテル

主 高 錫 權

宿泊料二食一泊二、〇〇으로四、〇〇까지

電光③二三五七

通告文

[illegible]

全州李氏璿原君派宗中代表

門長 李 會 南 白

朝報

讓店

[illegible] 電話本局六七七一番

軍手

[illegible] 京城府西大門町一ノ八四 常盤商會京城支店

集金

係募集廿五才迄希望者ハ履歷書携帶本人來談アレ但シ保證金二百圓及ビ市内確實ナル保證人二名ヲ要ス面會時間午後一時ヨリ三時マテ

京城本町二丁目

株式會社 村木時計店京城出張所

外務社員招聘

經驗有無不問하고努力奮鬪의士를求함二十五歲以上의有爲外務社員을招聘、履歷書보내면面會日通知함

京城府長谷川町一一二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 朝鮮支部長 白石一男

電話本局二三二四番

効能で賣れる 七ふく ひえぐすり

効能 上氣를引下하고通便을잘함 梅毒淋疾諸毒을除함

藥價 一週分五十錢 三週分一圓卅錢 五週分二圓 送料十錢 海外四十錢

大阪高津表門筋 本家七ふくや伊藤長兵衛

振替大阪九七三 電南七二九

箕城醫學講習所生徒募集

本科 六十人 速成科 九十人

出願期日 十月五日迄 開學期日 十月十日

本科入學試驗 十月七日ヨリ

學則請求郵券三錢切手

平壤府館後里 電話二四三一七番

간질

病으로永年苦生하는분 本位의良藥이잇다 理說明書有하니申込者에게至急送呈함

大阪市浪速區役所北通 大福堂

開運의好機는只今!

名觀相家

聖龍先生의判斷은如神

京城相學院長 聖龍先生은科學的관상학의大家로서만흔 士들의관상을보고 大好評을밧는 관상계의 권위자입니다 前途方針에對하야 헤매는분、適業을選擇하고大成功을바라는분、幸福한結婚을바라는분、夫婦間의不和로煩悶하는분、株式、期米、鑛山業으로利益을보려는분、其他 損害를當하는분、訴訟의勝敗等어떠한방면에도 聖龍先生의 明確한判斷을보시고開業成功의길을보려주시는바입니다

【성룡선생】

◇京城太平通二丁目三〇六 (南大門다大漢門의中間電車通り)

◇地方에게신분은생년월일과 要件을자세히적으시고요금을付送하시면곳지세히회답해드립니다

京 城 相 學 院

헤바래기

금년엔 여름도 다갓스니 말이지 덥기도 지독스럽웟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선 선한가을이되엿건만 레년가트면 벌서 가을타령이 번거로웟질것인데 금년에는원체 시절이긴장한탓으로 사람들의 정신이긴장하야 가을화초가엇더니 할만한여유들이 업는가봅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다른동물과달러서 의식주의해결과함께 취미라는것을 떠날수업습니다。그래서 첫가을가정취미의왕자리는 가을화초꽃을 차저가보기로 하엿습니다。

창경원 식물원에는 화초 치고 업는것이업습니다。무엇이던지 다잇다는 식물원인데 정작가서보니 우리네가정에서 친케보는 화초는별로업고 모다 멀리서온열대지방화초만을수상한듯다。찻다가 찻다가 눈에띄인것은 따리야 해바라기 호파초따위엿는데 그것은 그다지귀중한것이 못된다는듯이그냥 한구석에 심어두엇습니다。

금년엔 어떠케 더위가지독하야서 이화초들이 모다 잘자르지못하고 야웨여젓다고합니다。그도 그럴가봅니다 헤바래기꽃은 키가 훨씬크고 당냥어 고개를 내여노하야할터인데 여기잇는 헤바래기는 키가 나저서 난쟁이가되여잇습니다。

꽃도 그냥 큰꽃치되지못하얏스나 그래도 제철이라놉다란 가을하늘미테서 잇다금 지나가는 건들바람에너훌거리고잇섯습니다。

실상 가을화초로 유명한도라지꽃가튼것은 도모지 눈에 띄이지안햇습니다。

(사진은 헤바래기꽃)

『뇌일혈』에 걸리는사람

건장한체격도 안심안된다
유전이외에 다른병도원인

최근도시문화(都市文化)가 급격히 발달됨을따라 뇌일혈로 죽는사람이 만해젓습니다。

뇌일혈이란병은 돌연히차저와서 것잡을사이가 업시 죽는병이니 병중에 제일무서운병입니다。

더욱이병은 청년이나 장년에게 가장만흔것이며 평소에는 건강에장담하던사람도 뜻하지안흔사이에 그만이병으로 죽느니가 버일비재입니다。

그리고 더편난한것은남자의 제일활동시기에 이병이잘 이러나는것입니다。

장년이되여서 겨우사회적지위와 생활의 안정을엇고자라가는 자식들을 귀여워하며 인생일생의 참되행복을 누리랴할때 이병에걸려서 죽는지 그러치 안흐면 반신불수가 되는일이 잇습니다。

이뇌일혈(腦溢血)이란 병은 체질에 따라서 이러나는병이니 미리자기체질여하를 아라두엇다가 여기대한 예방을 하도록 하십시요。

그체질과 조건을 드려서 여기대한 주의를 쓰기로합니다。

(가) 유전관계(遺傳關係) 자기의 혈통에 뇌일혈로죽은사람이 잇다던지 중풍과 심장마비로 창졸간에 죽은사람이 잇슬때는 자기가아조건강하더래도 상당한 주의와 경계를 가저야 합니다。

(나) 졸중체질(卒中體質)의사람은 장년이되면 가장 건강해지나 조곰 늙기시작하면 졸중을 이르키는것인데 이것은 유전관계도 잇고 음식물의 관계도만습니다。

졸중체질이라고 하는것은 몸이똥똥하고 머리가 크며 턱이짧고 배가나오며 손발이 똥똥하고 짧습니다。

(다) 경화체질(硬化體質)이라고하는것이잇습니다。이체질은 졸중체질과 반대로 야웨인편으로서 신경질이며 이마의혈관이 굿세게드러난체질입니다。

이러사람은 늙기시작하면혈관이 구더지고 혈압(血壓)이노파지며 협심증(狹心症)에걸리기쉽습니다。이런사람은 노년이되면 뇌동맥이 구더저서 뇌일혈을 이르키는것입니다。

(라)술을 만히먹는사람이나 매독에걸린사람은 역시 뇌일혈에 걸리기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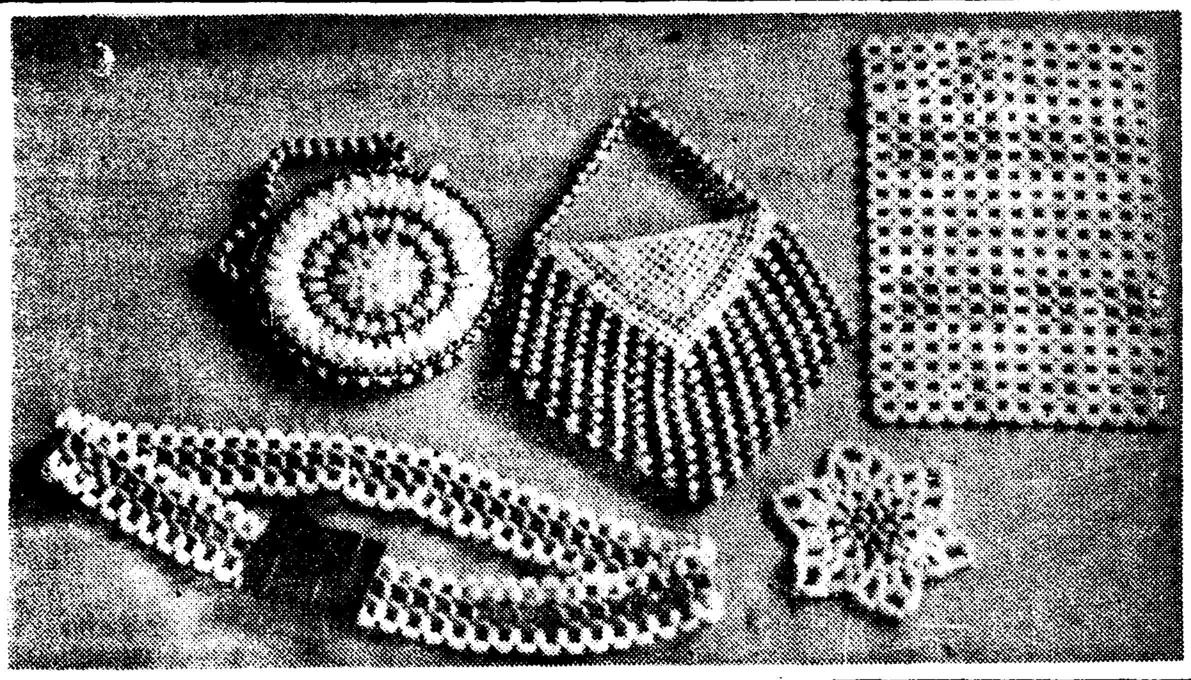
(마)신장병(腎臟病)이만성이 되면 뇌일혈의 원인이되는수가만습니다。

그런데 뇌일혈은 륙십칠십에 갓가운노인에게 만타고한것인데 요사히는 수십전후 삼십년대의 사람에게도만흐며 사오십년대의 사람에게 제일만습니다 이것은 사회생활이 복잡해지고 도시문화가 발달되여 육식(肉食)을 만히하며 술먹을기회가 만허지고 머리를 과히쓰는 로동을하는까닭과 살기곤난한세상에 여러가지로 정신적불안이 잇는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노인에게만 잇다고하던 뇌일혈이차차 젊은사람을 침범하게되는것입니다。

딸꾹질나는데

딸꾹질이 나기시작하면 아모리애를써도 잘낫지안습니다。딸꾹질곳치게하는데는『암모니아』냄새를 쏘이는것이 제일입니다。암모니아의 냄새가 코속으로드러가면 딸꾹질은 신통하게곳처집니다 만히리용들하시지요。



머리빠지는데는 엇더케하면될까

참바람불면속상하는일

가을에만 그런것이 아니라사람의 털은 하로동안에 보통칠팔십개가 빠지며 심한것은 백개를 훨신넘습니다。더욱 가을에는 이것이 더 심해지는것입니다。그러나 아침마다 머리에 빗을대이면 그저거짓말 하드시작고빠지는것은 병입니다。

털은 털뿌리에서 기름이나와 그것이 털끗까지 배이고 윤기가 나면 아모리하여도 부러지도안코 빠지지도 안는것입니다 보통털이 빠진다고 하는것은정말 털이빠지기도하나 털중간이 부러지는것이 보통입니다。그러므로 이것은 털뿌리에서 나오는기름대신 머리기름을 발려서 보충하면 방지할수가 잇습니다 더욱 파-마넨트한 머리털은 변질해잇는 관계로 기름기가적어서 바삭바삭 부러지는수가잇스니 매일가티 기름을 바르도록 하십시요。

털이 잘빠저서 걱정이라하야 이것을 예방한다는것도 결국은 그털의 부러지는것을 방지하면되는것입니다。

기름을 놉바를것이라 머리를감을때 오일삼프를 하던지머리를드려감으면 더욱류리(游離)알카리가 만히드러잇는 비누는그리털을 상하게 하는것이니 쓰지안는것이 조켓지요 그리고게란노른재를 한개식 푸러서 씨스면 단백질로 말미아마 털이 상하지안코 머리를 씨슬수잇습니다。

씨슬때의 주의로는 처음씨칠때보다 두번째씻는 물을더웁게하면 때가잘지는데 이러케해도 안될때는 암모니아를 조곰타서 감도록하면 조흡니다 털을자르게하는 양모제(養毛剤)는 여러가지다 잇는데 키니-네라던지 코레스드린과가튼 양모약을쓰면 알콜이혈액순환을 도우고 털뿌리를자극하야털이잘 자라게 합니다。

이러한 양모제는 털에윤을드리는분에게는큰효험이업습니다。

우리차지

나팔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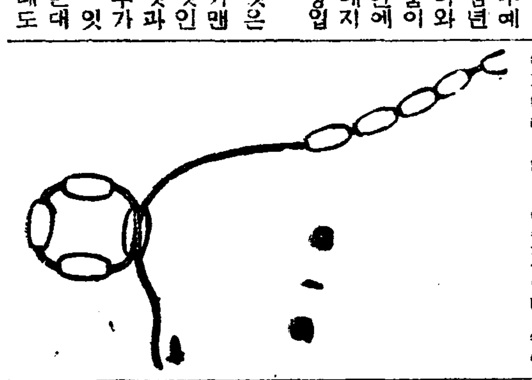
뒤울에 핀 나팔꽃
아롱아롱한것이모두곱구나。
한송이 두송이 또셋넷
어유! 어것이 모두
나잠자는 동안에 살그머-니 피엿겟지。
나를 깜짝놀래주려구。

(글쓴사람 박대희)

자미잇는수예 "우-드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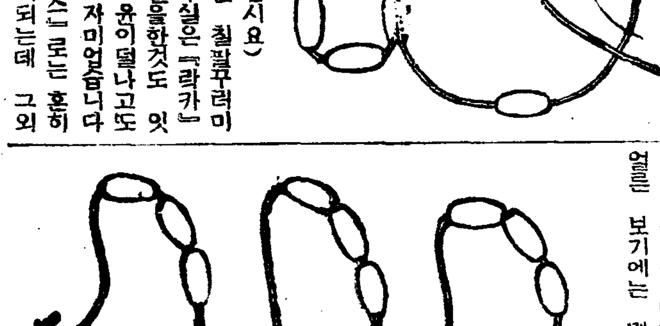
올부터류행되는 수예품중의하나로 색다른점이잇는것은『우-드·피-스』라는것인데 여름수예로 꽤자미잇는것입니다。이삼년부터 백화점에상품으로 나와도라다니는것입니다만 기성품이라 자미가적어서 인제는집안에세손수맨드러갓게되어 일본내지에서는 상당히 류행되는모양입니다

이『우-드·피-스』라는 것은 가벼운나무로다가 구슬을깍가맨드러 거기에『락카』칠을한것인데 지금에잇서서는 동그란것과 대조처럼 갸름하게 생긴것두가지입니다 빗갈도여러가지가 잇스속 사쓰는분의마음에 드는대로고를것이며 갑스로말하드래도 이백개한꾸러미에 이십여전박게 안간다합니다。(백화점이나 수예품점문방상에무러보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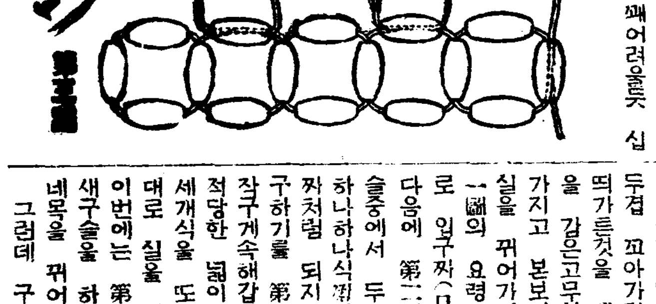


보통핸드빽가트면 칠팔꾸러미면넉넉합니다 이구실은『락카』대신에 다른빗의칠을한것도 잇스나 갑도더싸고 윤이덜나고도 벗겨질염려가잇서서 자미업습니다

이『우-드·피-스』로는 흔히 핸드빽을만히만들게되는데 그외에도 허리띄 테이블센터-화병바침 지갑등속 이외에도여러방면에 자미잇는것을 만들게된다합니다。



第一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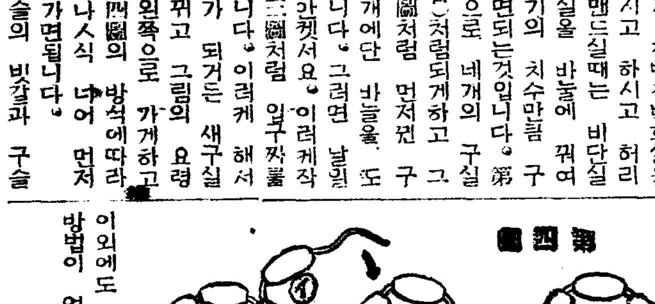


第二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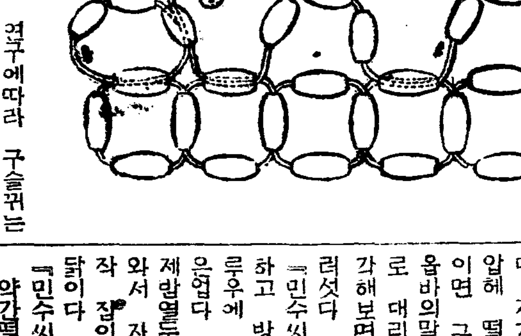
맨드는법을 말슴드리자면――얼른 보기에는 꽤어려운듯 십지만 그림을 가만히 드려다보시면서 두서너번만 연습하시면 금방 아실수잇습니다。

먼저 핸드빽 지갑 등속을맨드시랴면 먼저 재방칠박휘실을 두겹 꼬아가지고 하시고 허리띄가튼것을 맨드실때는 비단실을 갑은고무실을 바눌에 꿰여가지고 본보기의 치수만큼 구실을 꿰어가면되는것입니다。第一圖의 요령으로 네개의 구실로 입구짜(口)처럼되게하고 그다음에 第二圖처럼 먼저뀐 구슬중에서 두개에단 바늘울 도하나하나식뀝니다。그러면 날일짜처럼 되지안켓서요。이러케작구하기를 第三圖처럼 입구짜를작구게속해갑니다。이러케 해서 적당한 圖이가 되거든 새구실세개식을 또뀌고 그림의 요령대로 실을 외쪽으로 가게하고 이번에는 第四圖의 방식에따라 새구슬을 하나시식 너어 먼저네목을 꿰어가면됩니다。

그러데 구슬의 빗갈과 구슬의 크고적은것을 가려가면서 이러케도 저러케도 변화잇게 맨들수잇습니다。지금 말슴한방법 이외에도 연구에따라 구슬뀌는 방법이 얼마든지 잇슬것입니다



第三圖



第四圖

長篇小說 찔레꽃 【115】

金末峰 作
金熊超 畵

적자(赤字)(七)

정순은 경구를바라보고 쓸쓸하게 우섯다。

『자 무슨말슴입니까』

하고 정순을쏘아보는 경구의 눈은 무섭게 번적어린다。

『이것은 내가 무덤에갈때까지 가지고갈 비밀로 생각하고 잇섯든것입니다만 경구씨께는 알리워드리지안으면 안되도록되엿스니까요 그대신 경구씨도

가』

『…………』

정순은 잠잠한채 고개만 끄덕여보엿다。

『그러타면 정순씨는 민수군과……?』

중얼거리든 경구는 일순 천길랑떠러지에 굴러떠러지는 사람모양으로 두손으로 얼굴을싸면서 압흐로 꼭구라젓다

한참동안 죽은듯한침묵이 두사람의입을 완전히 봉해버렷다 이

이말을 드려신이상 영원토록비밀을직혀 주시렴니가 그것을 약속하시겟서요』

『네―약속하지요』

하고 대답을기다리는 경구의 가슴은 처녀처럼 떨리엿다。

『경구씨 당신은 민수라는청년을 참말로 내외사촌옵바로만 생각하세요?』

하고 정순은 방그래우섯다。

『아 아―니 그럼 민수군은 정순씨의 옵바가 아니란말입니까』 하고 얼굴을들어 정순을 치어다보는 경구는 핼슥하여 빗을잃흔 얼굴로

『그럼 엇재서 외사촌옵바란말이 나왓든가요 누굴속이시려고 첨부터 계획을 하섯든가요?』

하고부르지젓다

『건 부득이 민수씨를 위해서 춘부장께 일시적으로 드린말슴이야요 웨 토지경매사건짐작하시겟지요? 내입으로는 암만해도 그와약혼햇다고 할수는없섯서요 그래부득이 친척이라고…』

여기까지 말을계속한 정순은입을다무러버리고 차되차게 우섯다

『정순씨! 물론 우리네사람사이에는 크-다란 착오(錯誤)가 잇섯는것만은 사실입니다 민수군과 경애와 또 정순씨와 나 그렇게 네사람이 한자리에서 전부를 타파합시다 해가지고 민수씨와 정순씨의사랑이 부활되면 다행이구요… 그러나 나는 영원토록 결혼을 단념할것입니다 정순씨이외의 녀자는 내게 무의미한사람들이니깐요』

『…………』

『엇더튼지 내량심으로 그대로 침묵하고 잇슬수는 업스니까 좌우간 민수군을 한번맛나보겟습니다』

하고 경구는 힘이빠진듯이 자리에 벌덕누어버린다。

『그럿치만 한번 도라서 버린 민수씨를 도리킬수도업고…… 그중간에 또한사람 경애씨에게 상처를주는것이 되지안흘까요?』

『모도가 운명이니깐요……』

『전지금 새삼스레 이 문제를 끄집어내고십지가 안습니다…… 비밀을 직혀주시기로 약속을하신이상 저는 경구씨가 이일을절대로 루설치안으실줄 밋습니다』

『…………』

경구는 쓰디쓰게 입맛을다시고

『이문제는 제게맛겨주십시요 결단코 정순씨의 체면을 상해드리지는 안흘것이니깐요』

경구는 도라나가는 정순의 머리뒤를 향하여 외치고 타는듯한목을 적시려고 손을내미러 머리맛 적은탁자우에 노힌 벌서 ―늘해진 우유잔을드러 벌컥벌컥 드리켯다

이튼날아침 보리죽을가지고옵바의 방으로갓슨 경애가 한삽십분만에 다시빈그릇을 가지고 주방으로갓스나 그는 그길로자기방으로가서 꼿 외출할 채비를하엿다

목덜미에 가루분을뿌리는 그의가느다란손이 쉼새업시 떨리고 빨으래 루-즈를칠하는 그의입살에는가느단경련이 몃번이나지나갓다

효자정가는 전차에올라란 경애는 달달떨리는덤을 푸석한 외투깃에 파무드며

『키스를청한내가 못된계집얘가? 아니 그럿치만 난분명코 민수에게 다짐을밧지안엇든가 정순이가 진실로 사촌누의거든 내게 키스하라고……』

이러케혼자 속으로 중얼거려보앗스나 자긔자신이 지나치게 민수에게 열정을밧친것이 물려올수업는 손해처럼 생각이되여 외투속에넝코잇는 손가락으로자기의 넙적다리를 살점이 떠러지라고 꼬집엇다

『그보다도 아아 그보다도』

경애는 호-하고 한숨을뿜엇다 그는 암만해도 민수를 일허버리고 살아갈자신이 업는것이무엇보다도 슬펏다

경구의말과갓치 네사람이 한자리에모혀서 모든것을 타협한뒤에 만약에 민수와 정순의사랑이 다시 부활한다면?…경애는거기까지 생각하고십지가안엇다 자기는단지 커-다란 운명압헤 떨고잇는 한적은 구경군이면 그만이다 생각한 경애는 옵바의말대로 민수를 자기집으로 대리고올것을 마음으로 생각해보면서 민수의하숙으로 드러섯다

『민수씨!』

하고 방문압헤서 불럿스나 마루우에 구두는잇스면서도 대답은업다 그도그럴것이 민수는어제밤열두시에 근호와함께 도라와서 자리에 눕기는하엿지만정작 잠이든것은 오전네시엿든까닭이다

『민수씨!』

약간떨리는 목소리로 또한번불러본 경애는 재범거출게 영창문을 휘열어제첫다

부인병때문에대하증이 생긴것이니속히곳치자

자궁속에병균이들어가서 부인병을알케만든것임으로 직접병화근인 자궁에帝大病院서쓰는『와세돈球』로 치료하시면단시일안에근치됩니다

V・41

몸배오르는요새에 몸시아래배가 쑤시고 땡기며 허리가 끈어지듯이 아푸면서 몸서리칠만큼 억쉬가나는 대하증이 흘너서 고통을 밧고게신여러분! 월경이 고르지못하거나 월경때면 눕게되도록 몸시 앓으며 눈 두통과 상기증이나고 화색이 납빠서 번민으로 신세타령으로 세월을 보내실줄밋습니다

그러면 엇던원인으로 그런증세가 생기느냐하면 자궁속조직에 병균이 들어가서 그곳을 붓고 열이나게하며 홈집을만들어서 쑤시고 결니게하는만큼 그곳에서 생기는 진물과 고름이 즉『대하물』이니 병화근――즉 자궁속을직접 치료해버리시면 대하증은 물론이요 지금까지에 여러분이깨닷고게시든 모든 부인병의증세는 모조리업서집니다

그런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자궁속에서 活動하고잇는 병균을 모조리 죽여야만되는데 이것을 곳치시라고 흔이 먹는부인약종유――탕약、물약환약、가루약등을 장복하든가 혹은專門醫師가권치안는 민간에흔이잇는것들을써서 오히려병세를 중하게하여서 비참한선세를맛치시는분이 만흠은참으로딱한 노릇입니다

그것은 먹는약은 배속을통하야 그곳에일으키기때문에 낫지안으며 넛는약일지라도 유명한病院의림상치료시험이 업는까닭에 일시的인의・폐단이잇는것이니 반듯이 信用과약효가훌륭한『와세돈球』로 꼭처주시서전쾌의깃븜을 어떠주시기바랍니다

가정에서 간단히 근치된다

와세돈球는 고흥이라色 돗는 말낭말낭한약으로써 주무실때 약한개를 국부에너시면 그이튼날부터 몸이가볍고 병고가살아지는약입니다

약가는 十二日分…一圓廿錢 廿四日分…二圓卅錢 卅六日分 三圓四十錢(病院用덕용분) 百四十四球…十三圓이온대 조선국문으로 병세를쓰시고 우표 삽십전을선송하시면 대금인환으로도 송약해드립니다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京三五〇一九)

조선문으로된『부인병자택치료서』무대진정

와세돈球의德澤으로

……저는이럿케부인병이근치되엿습니다……

活路를어든나의깃붐 (順川) 趙文愛

拜啓 此時盛夏之際에 귀사의 영창과 여러선생님들의 영영均吉을앙축하옵나이다 懇德으로 저의중세는完治되엇습니다 아조몸쇠약과 혈색이완전히회복되지안엇슬따름이지 다른증세는 조곰도업습니다……三年이라는장구한동안을 조라는약은모조리조차가며 使用해보앗스나 그어느것에서도 띄끌만한효험도보지못하고 더구나 비단은겁으로산약(역시삽입약)을 쓸때에는 동통은 더심해가고 가며 제일흘너내려서 그不快한말이야 이로다말할수업섯습니다……귀약을쓰기시작할때도 또속으면 모든것을단념하고죽을수박게업다고까지 생각하고 잇섯든것이 불과六十여일에딴사람가티되엿고 여름에더심하든惡臭를 今年여름에는 모르고지내게되엇스니 이것만으로도 날뛰는가슴을 難禁之境옵나이다 이은혜를 어떠케해야 다가풀는지 다만회생구세주하나님과 함께 축복하야마지안습니다

탕약으로속은울분을『와세돈球』로분푸리 (路下) 李順伊

이무더운더위에 泰安들하십니까? 선생님들의 恩德을多蒙하야 冷症이全治되고 受胎까지하엿스니 참말고맙습니다 이제病院에가서 진찰을밧고서야 비로서 임신이라는것을알고 나니 무엇이라고 다치하의말슴을 들엿스면 조흘는지모르겟습니다 그것은 너무나오래동안, 약에속아오기때문에 이번에도 또헛일이겟지하든생각이 豫想外의수태의깃븜을당키때문입니다 지금까지近一年동안이나 부인병약이라고 떠드는탕약(역시탕경서파는사물탕비슷한것)을 장복해왓스나조금도 효험이업시 대하물은 전보다더욱심히 나오고 동통을 주든것이 와세돈球卅六日分으로 씨슨듯이개이고 그후계속하야 사용해왓드니 수태하는경사를보게되엇습니다 다른약으로속아온 분푸리를와세돈球로한심입니다 금후도 안산을 도모하야 계속사용하오니 곳卅六日分한개를보내주시기를 바라며 兼하야 그에對한注意를下敎하여주심을 切望합니다

病治와受胎의 二重의깃붐을엇고서 (高城) 洪順女

…너무도 오래동안을두고이약 저약에 속아와서 疑心하면서 도貴社 와세돈球를 써보앗든 것이(中略)이와가튼경사를 엇 개되엿스니 무엇이라고 先生께 고마운치하의말삼을 해야 할런지 모르겟습니다…下送하여주섯든藥으로 대하물이 아조곳첫슬뿐만안이라 수족이따뜻해지고 월경이순조로워과터 부러 고통을느기지안케되엇습니다 그러드니 三個月이나두고 월경이도업기에 증세가아즉낫지안엇는가보다하고 의이의진찰을바다보앗드니 醫師의 말이 受胎의경사라고하니 이러깃붐이 또어데잇겟습니까? 그러지안어도 今年六歲먹은女兒로난후로 수태를못하야 고대하든동이라 원집이 모다깃붐에넘처서어쩔줄을 몰으는바이오니 이다 貴藥의은덕이…

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

一日ヨリ四日マデ四日間 階下席 十錢均一

岩見重太郎 主演 阿部九州男 木下雙葉
嵐の戰捷旗 主演 [illegible]
想ひ起せ 乃木大將 主演 五味國男・五味國枝
東日大每ニユース上映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 第二回 三、 第三回 七、
永樂町 本三二〇四 中央舘 888

三十一日ヨリ六日間 晝夜三回 大人五〇錢 學生小人三〇錢
P・C・L超大作 渡邊邦男 監督 岡讓二 主演 堤眞佐子 大川平八郞共演 入江たか子 特別出演
▼北支の空を衝く
伊ローマフイルム社超特作 アウグスト・チェニーナ監督 フルヴィア・ランツィ アントニオ・チェンタ 主演 ムツソリーニ賞獲得
▲リビヤ白騎隊
東日 北支事變 大每 上海ニュース
若劇

三十一日부터五日間 料金大人三〇錢小人二〇錢均一 十時半、一時半、六時半 三回興行
◉◉朝日世界뉴-스
◉◉讀賣發聲뉴-스
◉東日大每 國際뉴-스
北支・上海變特報(新着)
◇新興키네마超特作 原作…吉屋信子 監督…西鐵平 主演…植村謙二郎 吉川登美
女同志
戀愛와藝術과友情에煩惱하는세사람의女性을그린눈물의名作
◇유니버-살超特別提供 監督、리차-드・보레스라브스키- 主演、샤-루・포와이 마르레네・데이트리히 新樣式總天然色
沙漠의花園
特別社告 幣社所屬인듯宣傳하고잇는劇團新舞臺는幣社와何等關係가업슴으로紙上으로謹告하나이다
團成社

◇九月一日부터三日間!! 每日晝夜二回上映 낫一時 밤七時十五分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超大豪華大傑作品)
◇RKO超特作全發聲日本版!! 空中活劇 嵐の翼 監督 크리프-리-드氏 主演 로바-도암스도롱氏 원돈하와-쓰氏 사리-아이라쓰孃
◇甲陽映畫社特作オール-サウンド版!! 時代連續大活劇 奇傑黑鷲 前後篇十五卷 同時上映 監督 下村健二氏 主演 羅門光三郎、櫻井京子
桃花劇場 電(龍)一三三三番

◇九月一日부터三日間! 土曜日曜祝祭日은晝夜三回公開 (낫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 밤七時十五分始映 料金階上三十錢階下十錢均一 (二大傑作巨篇當堂上映)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갱크大活劇 武裝한市街 監督…스츄아-도레이스파- 主演 랄프、베라미 데저트、훌드
◇P・C・L・日活・テイチク合同超豪華オールトーキ版 現代戀愛歌劇 東京ラプソデー 監督 伏水修 主演 藤山一郎、椿澄枝 星玲子、大村千吉
全發聲 뉴-스四卷 파社特作全發聲漫畫一卷
京城新堂町 (電本)五六七七番 新富座

寶庫明川

咸北의重要地帶로 海陸物産이豊富

明川大豆와明太等生産만도 年額三百萬圓을突破

躍進咸北의 重要地位를 占하고잇는 明川은 陸海物産이 豊富한 寶庫이다 各種物産을 다 紹介하자면 紙面이不許하기로 간단히 몃가지만 紹介하기로한다

첫재農産物은 沃土良田에 五穀이모다 豊富하지만 其中에도明川大豆라면 全朝鮮은勿論이고日本內地에서도 特別한聲價를 認定하게되여 年生産高가 十三萬餘石의 記錄을 내이며 代價로換算하여도 約三百萬圓의 巨額에達한다 그리고農事方法은年年改良되여 畢竟倍前以上의 生産高를 보게되리라하며 海産物로서는 全朝鮮的으로 有名한明川明太를爲始하야 鰮魚及其他魚類와乾海苔로年四千萬斤의生産高를보게되며 代金으로換算하면百萬圓을超過하는現狀이다 今後로서는當業者들間에 在來方法은一蹴하고모다科學的機械를 利用하리라하니 明日의明川은 實로超飛躍的으로 發展하리라고 思料한다

地勢……本道의 南部에位置하여 北은鏡城郡에接하고 西南은吉州郡에境하고 東

良化〃 一五四七名
明川驛〃 一九九二名
花台市〃 一二七〇名
泗浦港〃 一四一三名

人口及戶數

	朝鮮人	日本內地人	外國人
戶數	一八〇三	四四	八
世帶	一九四五	七七	一四
男	五八三三	一八五	三九
女	五八五一	七二	一七

名◇勝◇七◇寶◇山

關北의 金剛山이라고말하는七寶山은 咸鏡線古站驛에서 七里를隔한 地點에位置하야 自動車로約二時間동안이면 到着하야勝地를 볼수잇다 七寶群峰中 特히寺岩 舟岩 千佛峰 萬獅峰 會像臺가튼것은 實로 金剛山에지지안는 景勝으로 四時의 探勝客이 不絕하는 狀態이다 山中에는 高麗時建物인 雄壯한開心寺가잇고 東南에뻐친 奇妙한山脈이 東海에이르니 此는海七寶라 稱하는 絕景이며 東北間에는 北深谷으로에 深潭을남겨 魚族으로 充滿하고 로부터千里以上에 亘한 白火石이 계하고 이를지나서 石階五十餘段이 連續的으로 白岩가리갈리고 물을흘려떠려지는 龍潭瀑布가이서 溪水가흐니 中途에個所 마음을끌게 人을 來遊케한다

一面一校는完成이나 就學은一割三分

教育機關이尚不足

아는것이힘이요 배워야산다는 말은 우리가귀에못이백이도록듯고잇는말이다 明日의明川建設을爲해서는 敎育施設이完備를論함은 吾人뿐아니다 全明川住民이八割以上이 아직도文盲地獄에서 無智한生活을하고잇다 現在一面一校는 完成되엿다하지마는 就學兒童은 學齡兒童의 一割三分强에 不過하며 其他私立學校三四校와 書堂三十三處의 兒童을 合하야 보와도 郡內學齡兒童數二萬八千七百四十八名에 對하야 二割四分弱을 示하는 悲心한狀態에잇다。손쉽게 着手할수잇는 無産兒童講習所 農民夜學等의 文盲退治運動을 展開식힐 有意한 社會的慈善家의 出現과 爲政當局의 寬大한理解와助力이 잇기를 要望한다

七寶山開心寺

人格이圓滿한紳士 道會議員 金益氏

氏는 일직京城五星學校를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한後 歸鄕하야 私立雩北學校長으로 就任하야 多年間 農村子弟의 育英事業에 힘쓰다가 大正十二年에 一般面民의 渴望으로 上雩北面長으로 就任되여 面行政에 特別한 治績을남겨 名聲이 籍籍하더니 再昨年面長을 辭任하고東一酒造會社專務取締役에 就任하여 實業界에 活動하던中 今年道議選擧에 郡民의 推戴로 立候補하여 斷然第一位를 獲得하여 榮譽스럽게 當選되엿는데氏는 本是頭腦가 明晳할뿐더러道政에도 기픈關心을 가지도잇슴으로 今後道行政에 잇서서 多大한 貢獻이有하리라고 一般郡民은期待하고잇다(寫眞 金益氏)

刀圭界一人者 永安醫院長 金承濬氏

氏는 京城醫專을 卒業한後遠大한 抱負를 품고 滿洲에가서 在滿同胞의保健을 爲하여 活動하다가 身病으로 因하야 다시 故鄕인 明川에 도라와 永安에서 開業하엿는데 氏는 本是患者에게親切하여 每日患者가 門前成市를하고잇다 그리고 德義心이 豊富하고 儀表가 端雅하야 얼는보아도 實業家의 仁術을 가진先生으로보이거니와 多年間의 經驗은 刀圭界에 斷然權威가되여 金醫師라하면 郡內는勿論 隣接各郡까지 名聲이 籍籍하다 (寫眞 金承濬氏)

農村救濟運動의先驅 實業家 任錫顥氏

任錫顥氏라하면 當地에서三尺童子라도모르는사람이업다 氏는 일즉京城普成學校를 卒業하고即時歸鄕하며 農村窮民의穀物豫賣制度를 斷然撤廢할作定으로 殖銀에서金一萬圓을借入하여 農村貧農民의 豫賣制의防止運動을 積極的으로한結果 至今은 當地農民層의豫賣制는 徹底히根絕되엿다하며 氏는農民指導及 農村事業에 活動할뿐아니라 育英事業에도多大한貢獻이有하니 當地明東普校設置以前까지 私立普校를單獨經營하다십피하여 多數한秀才를養成하여 우리社會에보내여各層에서活動하고잇게되엿스며 氏는더욱政治的頭腦가 明晳하여서今後各方面에 多大한期待가만타한다 (寫眞 任錫顥氏)

花臺公醫 張杉奎氏

氏는 京城醫專을 昭和四年에 優秀한 成績으로卒業하고 慶興良化等地의 公醫를 歷任한後昨年에 當地花臺에 轉任開業하얏는대 氏의醫術의 高明과 珍療의 合理는 그의業績으로보아窺知할수잇는同時 氏는 社會的으로 仁德이不少하다 氏는 極貧者에게 無料診療는勿論 特히官公署其他公共事業에對하야 獻身的誠意와 努力을다하고잇서 우리明川에잇서서 貢獻이크다 (寫眞은 張杉奎氏)

苦學으로成功한 鐵道醫 洪泰山氏

氏는 赤貧한家庭出生으로 當地私立東光學校를卒業한後 靑雲의뜻을품고 멀리平壤에가서 四年동안 苦學으로 醫學을해가지고 昭和十一年春期에 本府醫師試驗에合格하여 即時當地鐵道醫로 任命되엿다 氏는 本是頭腦가明晳하여 獨學으로 今後의期待가크다고한다 (寫眞은 洪泰山氏)

智德이兼全한 明川署長 小野秀雄氏

氏는 和歌山縣出身으로 일즉警察界에 投身하여 雄基 鏡城 吉州等地의 署長을 歷任하고 再昨年明川署長으로 轉任하얏는대 氏는 元來智德이 兼全한이로 每事를 圓滿히 處決하고 그리고 또 豫算이 밝다고하며 人民에게 對하여서던지 部下職員에게 對하여서나 權力的態度로 服從케함이 絕對업고 오직 德義와 人和로서 服從케하고 일에對하여는 몸소 指導實行하며 一時思想事件으로 騷亂하든 南部明川一帶도 氏의 徹底한 指導와 愛護로 因하여 只今은 各農村이 模範化하고잇다하며 氏는 淸廉한 警察署長으로 頌이 籍籍하다고한다 (寫眞 小野署長)

宗教

佛教(日本內地佛教曹洞宗)
寺刹又는布教所
寺刹一、布教師一、
信者 一百三十一名
佛教(朝鮮佛教歸州寺派)
寺刹又는布教所
寺刹四、僧侶 四名
信者 三十七名
基督教
基督教(長老教派)
禮拜堂十一 傳道師 七名 信者 六百五十五名
基督教(北가나다派)
信者 二十三名

金融機關

아직銀行과支店은업고 庶民金融機關으로는 金融組合五個所와 同支所四個所가잇다

組合所在地	組合員數	貯金	貸出
明川	二〇九一	[illegible]	[illegible]
阿間	三〇六一	[illegible]	[illegible]
花台	二〇八一	[illegible]	[illegible]
極洞	一三一八	[illegible]	[illegible]
永安	一三一六	[illegible]	[illegible]

教育界의功勞者

氏는關北名門의後裔로 氏라하면 紙上에紹介할餘地조차업시名聲이 籍籍하다 氏는일즉부터敎育方面에만히힘써 農村子弟育英事業에 貢獻이크다 大正十三年에出生地인下古面에 私立中興學校를設立

楚基英氏

에도繼續하야 各種社會事業에勞力하고잇다 只今氏의職業이司法書士라하건만 司法書士라는것보담 우리明川社會의重鎭으로各方面에指導活動하고잇는것만큼 今後氏의게對한期待가크다 (寫眞 楚基英氏)

水產業界의大存在 鄭寅七氏

氏는 今年四十一歲의 青年事業家로 距今十五有年前부터 水

明川의元老格인 農村指導者 玄斗榮氏

氏는 今年六十一歲의老人이지만아직活氣가 旺盛하고 靑年의意志보담 더욱 堅固하다 氏는일즉 三十八歲에郡守로 就任되여茂山, 慶興, 明川等地로 歷任하여 훌륭한 治績을남겨 民衆의 信任이두텁더니 大正十四年에 辭任하고 歸鄕하여農村振興運動에 힘스며 晝夜로 낫이면農村振興에 努力하고 밤이면洞內子弟를 敎育하여 農村開發에 率先活動하난대 氏는 農村振興運動뿐아니라 公職으로도 現花台金融組合長으로 잇으며 今年부터 淸津保護觀察所囑託保護司로 就任되여 農村靑年의思想淨化運動에도 積極的活動中이라고한다 (寫眞 玄斗榮氏)

漁業組合의面面

泗浦漁業組合
創立年月日 大正五年六月
組合員數 二百名
總一年豫算額 一、六〇三一、二〇
現理事 金振先

下古面漁組
創立年月日
一年豫算額 一、二五三四、九〇
現理事 朴鎭時

良化漁業組合
創立年月日 大正四年三月一日
組合員數 三百六十名
一年豫算額 一一、二四四、八〇

上古面漁組
創立年月日 昭和二年四月十五日
組合員數 五百八十八名
一年豫算額 一、三六〇〇、八四
現理事 金河周

東面漁業組合
創立年月日 昭和二年四月一日
組合員數 七百三十五名
現理事 車鎭協

創立年月日 昭和三年四月一日
組合員數 三百名
一年豫算額 七、九四〇、〇五
現理事 尹璣衡

私學界의자랑 明川三星學校

貧窮한 우리敎育界에 燦爛的存在로는 私立三星學校일것이다 純全한農村人의 힘으로된 農村兒童敎育機關이다 本是上加面 潮湖洞、自住洞、瓦洞三洞의 學契의 總財產인田畓二萬餘坪과 現金三千餘圓을合하여 今春에設立開校되엿는데 今年中에 萬餘圓

思想善導에注力하는 花臺駐在所首席 梅津氏

氏는警察界에 投身한지十餘年에多年道警察部高等課와 漁大津署에 勤務하다가 昨冬에花臺駐在所首席으로轉勤되엿는데 氏는 本是意志가 堅固하고 實踐的人物로 農村中堅靑年指導에 積極的活動을하여 至今市浦部洞川은 完然히明朗化하고잇는데 不遠將來에氏의 指導인農村은 模範村化하리라고하며 一般民衆은氏의指導에大端感心하고잇다 (寫眞 梅津警部)

祝辭

今般貴社에서 明川地方紹介版發行計劃은 機宜에 適한企圖로深甚한 敬意를 表합니다 本郡은 地廣人口物産 어느方面으로보던지 將來發展할 餘地

局의適切한指導와 思想淨化委員會의誠心活動과 地方有志의聲援으로今日엔 如斯한事件은 根絕된狀態에 至하엿슴뿐아니라 漸次明朗化하는 氣分을認케됨은 欣幸不已하는바입니다

本郡은元來農山漁村의 三方面이竝分한勢力으로 形成되야 今日의農村은 各個人의自覺이나 施設은此에注力함이아니면 郡勢의倂進向上을 期待키難함으로 共用意下에 郡政執行에 當하려한다 特히 十數年間懸案이든 各官署移轉도上府의 英斷과 關係地方民의深甚한理解로 平和裡에 決定되야今十月下旬에 移轉을 完了할豫定인데 郡民의 便宜와 行政能率의 向上은 再言할 必要도

漁民의指導者 泗浦漁組理事 朴鎭時氏

氏는일즉 京城의學校를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하고 多年間私立學校에서 育英事業에 從事하다가 泗浦漁業組合理事로 就任한以來 貧弱한 組合의 內容을 充實히하는一方 漁民의 指導에힘써 泗浦築港이 完成되는날에는 組合事務所와 倉庫를 新築하고 더욱組合의 內容을 充實히하고잇다 (寫眞 朴鎭時氏)

遞信界의元老 泗浦郵便所長 川口潔氏

氏는神奈川縣出生으로 橫濱商業學校를卒業한後 日本遞信에 奉職하여 勳八等까지바덧고 其後明治四十四年 南大門郵便局員으로任命勤務하다가 雲山郵便局長으로榮轉되여 多年勤務하다가 遞信機構改革으로因하여 辭任한后 現泗浦郵便所長으로 轉任以來 遞信事業뿐아니라 各種社會事業에도貢獻이만흔中 特히泗浦築港期成會會長으로 多大한活動을하야 地方發展에 貢獻이마나다고한다 (寫眞 川口氏)

海產業界의大存在 青年事業家 張天義氏

濟濟多士한 水產業者中에 咸北沿岸에서 張天義氏라하면 모르는사람이업다 氏는 元山東光學校에서 修業하고 歸鄉하여 父業을 繼承하여가지고 水產業을爲하여 活動하는中인데 氏는 社交的手腕이 敏活하며 人格이 重厚하여 一般이 敬慕하는터이다 今年은 事業을 擴張하여 巾着網의 許可를 어더가지고 猛活動하고잇는데 氏의 堅固한 意志와 꾸준한 努力은 氏의 압날에 더욱 큰 曙光이 잇슬것으로보인다 (寫眞 張天義氏)

農村의大恩人 陽村金融組合理事 林振雨氏

明川에잇서 農村를 爲하야私事를不顧하고 猛活動을하는人士를차즐때에는 누구나陽村金融組合理事林振雨氏를 곱을것이다 氏는 城津出生으로 當年三十四歲의靑年理財家로 일즉金融界에 十有九年間勤務하는中 昭和九年에 花臺金融組合陽村支所에 副理事로 就任하엿다 氏는性格이 快活하고 理解가豐富하여 一般組合員에게 歡心을사고잇스며 漁事에 熱誠이여서 陽村組合에 赴任한 當初來組合員指導와 農村更生運動에 積極的으로 活動하야 農民으로서는 完全히更生의 曙光을 보게되엿다 그리고 組合員指導團體를다음과가티 配置하고活動中이다

▲婦人會九個所▲殖牛契十五個所▲養豚契三十一個所▲植桑契一個所▲二十九個所公會堂設施▲婦女子文盲退治運動▲自給肥料獎勵▲收穫貯金獎勵▲農具改良 (寫眞 林振雨氏)

醸酒界一人者 上雩南面協議員 朴昌洽氏

氏는本是吉州出生으로 出生地吉州에서 多年間醸造業에 活動하다가 現在上雩南面市場 醸造場을 經營하는중인데 年產額一千二百餘石에 販路로는 郡內는 勿論이고 隣接各郡에 輸出되는 中이나 오히려 生產額의 不足을 느끼다하며 氏는斯業뿐아니라 現在公職으로도 面協議員及 學校學務委員으로 活動中이다 (寫眞 朴昌洽氏)

農村의指導者인 上加面長 金德善氏

氏는性格이 寬厚하고 手腕이 卓越한多角的活動家다 一般面民의 信望으로面長에被任한지 二十餘年동안에多方面으로面民의福利增進을爲하여 活動한功勞가 적지안타 面內에學校三十餘個所를 設立하고育英事業에힘쓰는一方農村指導에積極的으로 活動하며 農村事業으로 面內에 數萬圓工費를드려 六個所에 河川堤防을築造하야 農村更生에 힘쓰는等熱情的事業家이다 (寫眞 金德善氏)

祝 明川地方紹介版發行

明川泗浦市着組
明川丸漁業事務所

明川東面 面長 李震珪
明川西面 面長 車鍾瓘
明川下雩面 面長 鄭洙龍
明川上雩南面 面長 鄭會範
明川上雩北面 面長 金貴爀
明川阿間面 面長 太明鵬
明川上加面 面長 金德善
明川下加面 面長 董治明
明川下古面 面長 崔炳麟
明川上古面 面長 鄭東圭

明川郡東面多津 東面漁業組合
明川郡西面良化港 良化漁業組合
明川郡上古面仲坪 上古面漁業組合

明川郡上加面淵德洞 千基石
明川郡下古面荷坪市 崔成鍾
明川郡阿間市 金榮駒商店
明川郡下古面荷坪市 崔碩鍾
明川郡上雩南面市 兼仁堂藥房 醫生 金大長 藥種商 金勳憲
明川驛前 明川穀物商組合 組合長 李成甲
明川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明川代行營業所 代表者 李成甲
咸鏡線龍洞驛前 龍泉燒酎釀造場
明川郡良化港 公醫 崔哲柱
明川永安市 永安和信連鎖店 主 崔學連
明川極洞驛前 代書業 朴鳳成

의豪華版

泗浦築港의緩急은 明川發展을左右
現在는原始形態自然港이나 築港完成後는咸北의要衝地

泗浦는咸北의 南端에在한 浦口로 城津과淸津中間位置에잇스며 船舶의出入이頻繁하고 海産物이 豐産地로 有名할뿐더러 隣接各郡의 各種農産物의 集散地로서 地理的으로나 交通上으로나 有利한地位를占하고잇다 距今四十餘年前부터開港되여來 朝鮮郵船과大阪商船의 寄港地로 物産의 集散과 旅客의 出入이 자지드니昭和三年咸北線이 全通되자昔日보담 多少閑散하게되엿다 하지만隣接各郡의 豐富한農産物과 海産物이 年年增産되는까닭에取引高로나 外地에서의 搬貨移入高로 因하여 一年間貿易額이二百六七

十萬圓에達한다 더욱 連繫地帶로 關北의有名한 大市場花臺와는 不過四五里의 相距로 交易關係가 敏活하며 明川産大豆穀物等은全部花臺市場으로 나가서 팔리는同時日本內地와 南朝鮮方面에移出되고잇다 隣接郡인 吉州邑에 北鮮製紙會社가 設置되는바람에 急激한 發達과 吉州를 分岐點으로한 中部滿洲連絡이될 吉惠線이 不遠한將來에 全通을보게되면 泗浦港은 더욱重要性을띄우게된다 지금明川沿岸 一百里에亘한 海岸線에서 産出되는海産物은 貨物車와 牛車로 吉州를거처 每日移出되고잇난 現狀이지만 何等人工的 築港施設이업고

自然的으로形成된即自然港으로 船舶의出入이 不少하지만 築港못된까닭으로 每年船舶의 損害는勿論 人畜의損害도 不少한터이다 現在泗浦港의 築港이 未完成된때문에 郡內産出物과 鰮粕油等이 全部城津을 거처外地로 移出되는대 泗浦港이 直接間接으로밧는 損失은勿論이고 當業者의不便이 莫大할뿐더러 經濟上으로二重三重의 苦痛을밧고잇다 그러나 지금은비록 그럴지라도 吉惠線이 全通되는날이면 泗浦港의使命은 더욱重要한 地位에處하게되는 城津港의補助港으로 物産의呑吐와 物의 實地移出等 무엇으로보든지

絶對的으로必要케되는 다 當地에서도築港의 必要性을느끼고 昭和六年度에 經費四千餘圓과二個月의時日을 虛費해가면서 實測이까지한일이잇섯다 그리하여 地方民도 小餘年前부터 築港基金二萬餘圓을 募集하고 築港促成에多大한 活動을한結果 昨年에는總督府豫算에도 査定되엿지만 不幸히 中央政府에서 削除를當하고마랏스므로 地方民은 明年度豫算編成에는 期於코이것을通過시키고저 暗中活躍을 하고잇는터이다 以上大略記錄한바와가치 明川에잇서서築港이 絕對必要한것은 萬人이共認하는 當局의 適切한措置를바다서 마지안는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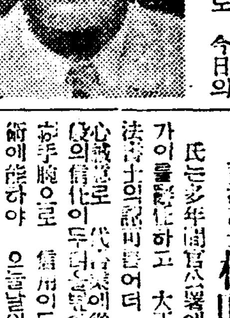
關北의名望家요 社會事業家 李學一翁

翁은 明川에잇서서 社會事業家로名望이놉다 翁은郡內有數한豪農으로 일직 明川南部一帶의 大凶作으로因하여 農漁村이困窮에빠저 饑餓線上에서 헤매이자 翁은 南滿洲米를購入分配하엿고 普通學校增築에도 數千金을喜捨하엿슬뿐아니라 翁은天性이寬厚하며 一般의名望이놉흔데 今年에도 郡廳移轉에千餘金을 寄附하엿고 國防費로도 多額을獻納하엿는대 翁은 압날에더욱社會事業을爲하야 힘쓰시리라고한다 (寫眞은 李學一翁)

靑年實業家 赤手空拳으로致富한 金應哲氏

氏는赤手空拳으로奮鬪하여 道內有數한靑年實業家로 累萬의致富를하엿다 明敏한頭腦로經濟界의動向을살피여 손을대이면 언제던지 莫大한利益을본다고한다 氏는 去來相對方에서 信用을지키여 書信이나電報一枚가 곳現金과마찬가지로 信用된다고한다 氏는 本是苦行力學의士로 只今에累萬의 富를이루엇지만 只今도 店頭에서 店員을 直接指導督勵하는터인데 一方印刷業을經營하며 文化事業에 貢獻이만호며 氏는廣業方面뿐아니라 現下雲面協議員、農會特別議員、金融組合監事等으로 多方面에活動하고잇다 (寫眞 金應哲氏)

水産業界의覇者 慈善家 李致翊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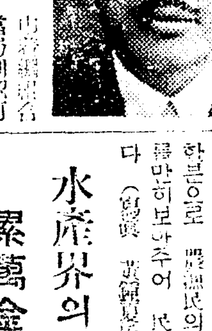


氏는本是性格이快活하고 頭腦가明哲하여 水産業으로 今日의巨富가되엿다 氏는昨年凶歉의回甲當時에 萬餘圓의債權을抛棄하여 守錢奴의耳目을 震動케하엿스며 現多津私立學校設立者로 氏의압날은 더욱囑望이크다고한다 (寫眞 李致翊氏)

漢醫學界元老 德望家 玄昇勳氏

氏는 우리明川에서 有數한漢學者요 漢方醫界에 元老이다。本是人格이 高尙하고 德望이노픈이로 醫術은 仁術이라하여 一生을淸貧하게지낸다 氏의蘊蓄한學術과豐富한 經驗으로는 如何한難治의病이라도 完治하며數만흔患者를 回生식히新界의重鎭이며 當年七十二歲의高齡임을 自他가共히遺憾으로 生覺하는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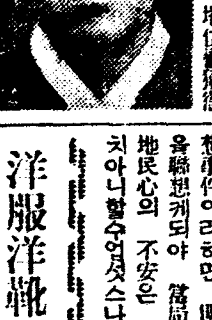
臨床에造詣가기픈 明川公醫 姜聖求氏



氏는海州出生의 今年三十三歲의靑年醫師로 昭和四年京專을優秀한成績으로卒業하고 羅南道立醫院에서 臨床을 硏究하다가 昭和七年에 明川公醫로 任命되엿는대 氏는溫厚한 學者타입에 義俠的性格을 가지고 잇서病者에게上下를 勿論하고 親切叮寧하여 當地에赴任한以來 各方面의歡心을 끌고잇다 貧寒한 患者에게는 程度를 따라惠施의 仁術을베풀고有意한後進에對하여는 그進路를 開拓하여주며 氏의惠澤으로醫師된者도三四人이된다한다

一하여 私財數三萬圓을던지고 其後 産業에 獻身的努力을 해오는터인데 氏는 本是意志가 堅固하고 事業的 手腕이 非常하여今日의 地盤을 닥것다 其間多少의失敗도 잇섯지만 氏는 조금도 落望치 아니하고 活動하여 只今의 確乎不拔한 地位를獲得한 … 定置網一個所와 在來式漁船 六隻 機船一隻으로 一年 漁獲高數萬圓에 製造販賣高 五六萬圓에達하는盛況을일우고잇는데 氏는이方面으로보던지 우리明川社會에期待가크다 (寫眞 鄭貢七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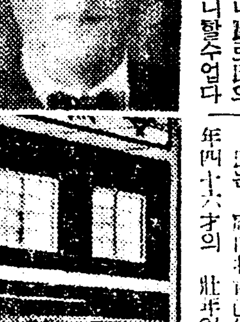
洋服洋靴界의巨商 阪神屋主 朴燦植氏



北鮮에 有名한洋服店을차즐때에는누구나 明川永安의阪神屋을指摘하게된다 阪神屋主 朴燦植氏는 當年二十九歲의靑年實業家로일즉實業學校를 卒業하고明川郡廳에서 數年동안勤務하다가 今春부터阪神屋을 引繼經營하게되엿는데 現在洋服部의職工三十餘名으로年二千餘벌을 生産하는一方洋靴部를두어 職工六名으로年産一千五百足을生産하여 明川에서자랑거리가되고잇스며 氏의敏活한活動은今後크게期待된다

阪神屋全景과 …

社交界의花形인 司法書士 朴明煥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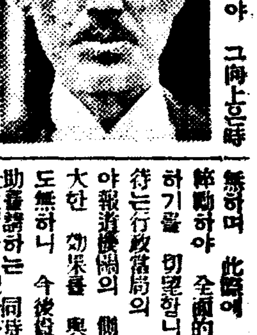
氏는多年間官公署에 奉職하다가이를辭任하고 大正十四年에司法書士의認可를어더 今日까지誠心誠意로 代書業에從事하며 一般의信任이두터울뿐아니라 敏活한手腕으로 信用이두터워 社交術에能하야 오늘날의成功을일우엇스며 압호로期待되는바적지아니하며 現在郡內諸業者中에서 一位의業績을나타내이고잇스니實로氏의敏活한活動은感歎치아니할수업다

建築業으로成功한 壯年請負業家 朱鳳吉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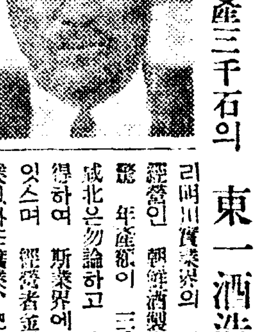
氏는 咸南北靑出生으로 今年四十六才의 壯年인데 … 年에 漂然히故鄕을떠나 關北方面을放浪하다가 若干餘年前부터土木請負業黑河組의 配下로建築業에從事하여 貧弱한우리建築界를爲하여多大한 活動을 해오던바 今年은明川各官公署의 驛前移轉으로因한 新築을請負하여歷史的記念建築을만히하는中인대 더욱 氏는明春부터 獨立하여 우리建築界를爲하여 多大한活動을 하리라고한다 (寫眞은朱鳳吉氏)

明川郡守 全昌林

가多大함은, 齊言을不要하는바이 … 나不幸히 昭和十年以來 思想事件의 突發로 地方開發에關한 各般施設과 活動이 停滯狀態에至하야 그結果는 明川郡發展上에支障이될뿐아니라 全朝鮮的으로 思想事件이라하면 明川이란 地名을聯想케되야 當局의 憂慮와地民心의 不安은 前途를 悲觀치아니할수업섯스나 其後警察當局의 … 善導를待할뿐이니 … 山村은 落後가甚하야 今後의指導施設이相當히併進하야 그向上을期할時 … 無하며 此際에 郡民은 心氣를 …하야 全面的明朗化에 努力하기를 切望합니다 然而此等期待는行政當局의 直面指導에伴하야 報道機關의 側面的激勵가 至大한 効果를 奏할것은 再論할것도無하니 今後貴紙의 多大한援助를 懇請하는 同時에 貴社의洋洋한發展을 祝하는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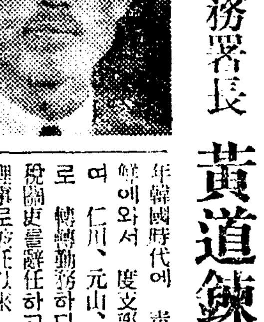


關北酒造界霸王 年産三千石의 東一酒造會社



누구나 咸鏡線列車를타고 旅行하면서 明川驛에到着하면 驛前에宏壯한建築物이 眼前에 展開될것이다 이것은말할것도업시 우리明川實業界의 重鎭金秀吉氏의經營인 朝鮮酒製造工場으로 年産額이 三千石에 販路는咸北은勿論하고 咸南僻地까지獲得하여 斯業界에 한자랑이되어잇스며 經營者金秀吉氏는 釀酒業以外도鑛業、肥料販賣를널리經營하는데 氏는實業方面뿐아니라 公職으로 現上雩北面協議員及郡農會特別會員으로 各方面에活動中이라고한다 (寫眞 金秀吉氏)

稅務行政에밝은 稅務署長 黃道鍊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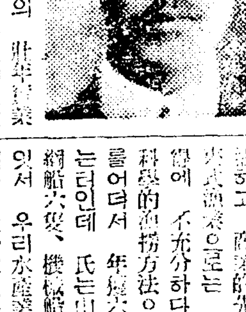
永興出生의 當年四十五歲의紳士 氏는大正五年에 普通文官試驗에 合格되여가지고 官界에進出하여 永興、端川等地의 郡屬을 歷任하고 昭和九年稅務行政機構改正으로因하여 茂山稅務署長으로 就任되엿다가 今年六月에明川稅務署長으로 榮轉되엿는데 氏는 本是人格이 高潔할뿐더러 더욱 理財에밝어 今後稅務行政에더욱 期待가만타고한다 (寫眞은 黃道鍊氏)

… 年韓國時代에 靑雲의뜻을품고朝鮮에와서 度支部稅關吏로就任되여 仁川、元山、會寧、城津等地로 轉轉勤務하다가 昭和十年에稅關吏를辭任하고 永安金融組合理事로就任以來 組合員指導와農村更生에 努力中이라고한다 (寫眞 小坂氏)

理財界의慧星 明川金組理事 池田敏弘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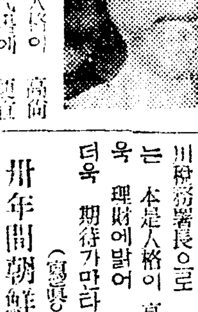
氏는 今年四十六歲의壯年理財家로 大正三年에 長崎高商을卒業하고 安田銀行에드러와 銀行界에서 多年活動하다가 大正十三年에 朝鮮金融組合理事로就任되여 城津、吉州各地金融組合理事를歷任하고 今年四月에 明川金融組合에轉任되엿는데 組合事務處理의敏速함은勿論이고 組合員指導에 積極的活動하여 農村更生에 多大한貢獻을하고잇다 (寫眞 池田敏弘氏)

累萬金致富한 水産界의巨星으로 李秉權氏



氏는今年四十五歲의 壯年實業家로 十餘年前부터 出生地인黃津에서 鰮漁工場을 始作하야가지고 今日累萬의 致富를하엿는대 氏는本是事業에 手腕이敏捷하고 商業的先見이 빨라 在來漁業으로는 到底히 漁獲을 增加키 不充分하다는것을 느끼고 科學的漁撈方法으로 巾着網許可를어더서 年産六萬餘圓에 達하는터인데 氏는巾着網뿐아니라 刺網船六隻、機船一隻을 가지고잇서 우리水産業者中에서 大氣焰을 吐하고잇다 (寫眞은 李秉權氏)

親切主義로一貫한 司法書士 黃鍾夏氏



氏는京畿道廣州出生으로 今年二十八才의 靑年紳士이다 일즉 淸津地方法院 雄基支廳書記와 明川登記所에 勤務하다가 뜻한바잇서 該職을辭任하고 昭和七年부터 當地에서司法代書를 開業하엿산대 氏는本是人格이 高尙한분으로 一般民의代書에 便宜를만히보아주어 民望이놉다고한다 (寫眞 黃鍾夏氏)

熱情的事業家 李元龍氏

氏는 일즉警察界에서 多年間勤務하다가 實業界에 投身하여十有五年間 鰮漁工場을 經營하여 今日의 事業的 地盤을 獲得하엿는대 氏는 恒常中小業者의貧弱함을 한탄하다가 昨年에 中小商業組合을 組織하여가지고 當局에 認可를 出願하엿던바 當局에서도氏의誠意에 感動되여 許可를 下附하엿는대 中小業者의 活氣는 勿論이고 氏의 情熱的 活動과 堅固한事業的 意志에는 氏의 今後事業에 더욱發展이 잇스리라고한다。(寫眞 李元龍氏)

永安高麗屋支店主 靑年實業家 韓元錫氏

氏는 京城中東學校를卒業하고 歸鄕하여 當地面會計員으로 任되여 農村指導에 힘쓰다가 다시郡農會에轉勤되여 多年間勤務하다가 再昨年辭任하고 實業界에投身하여 氏의令弟韓亨國氏經營인 大阪高麗屋洋服店의支店을當地에設置經營하는데 販路는咸北은勿論이고 全朝鮮及滿洲各地에店員을配置하여 朝滿一帶를舞臺로 今後多大한活動을 하리라고한다 (寫眞 韓元錫氏)

水産業界의覇王 性格이快活한 劉舜七氏

氏는今年四十八歲의 壯年實業家로 出生地泗浦에서 弱冠으로부터 水産界에 從事한지十有五年에 今日의大成功을 보게되엿다 氏는本是 性格이快活하고 每事에敏活하여 一般의信望이두텁다 氏의事業은 氏의性格과周密한用意와 만흔過去의經驗을加하여 今後더욱若臨堅固한 發展이잇스리라고믿는다 氏는일즉泗浦漁業組合長으로 被選되여 組合의內容을 充實케하며 組合員을指導하는等 功勞가크다 (寫眞 劉舜七氏)

酒造業의先驅 良化酒造場 崔正山氏

우리明川釀酒界의 慈星的存在로는 良化酒造場의 崔正山氏를들것이다 氏는 吉州出生으로 故鄕에서多年間斯業에勞力하다가 若干十餘年前부터 現良化酒造場을引受經營하는中인대 一年生産高一千三百餘石에 販路는東海岸은勿論 멀리鏡城漁大津方面까지뻐처 日常製造品의不足을느끼고잇서 今夏에다시立石酒造場까지買收經營하는대 氏의事業은今後더욱發展되리라고한다 (寫眞 崔正山氏)

內科의權威者인 敦化病院長 崔承河氏

確乎不拔의地盤을가진 病院으로는 花臺敦化病院에 뛰여날病院이업다 院長崔承河氏의 꾸준한精進의所賜이며 氏의學究的態度에는 一般의尊敬이 集中되는터로 特히 産婦人科 內科는더욱 氏의 得意로하는 專門科로 氏의蘊蓄한學識과 神奇한技術로 數만흔患者를回生식혀 氏는實로斯界의重鎭으로 自他가共認하는 바이다 中流以上層의 歡心과支持를밧고잇는대비치여 氏의人格을알수잇스며 氏는各學校擔當醫로서 더욱히兒童保健에 關한硏究가깁다고한다 (寫眞 崔承河氏)

은日本海에面하엿다 長白山系의支脈이 郡의西北部에至하여 峰巒相疊하여 其支脈의一은 鏡城郡界에沿하고 一部는本郡의中央部로走하여 東南에花台川沿岸과 西北의明澗川沿岸에 多少平坦한地域이 多하지만 大槪는山岳高原地帶로形成되엿고 海岸線은二百里에及하지만 斷崖絶壁의頗多로因하여 船舶의出入에便한곳은南部의泗浦와 北部의良化에不過하다

位置 東經(東端 一二九度四 / 西端 一二九度〇六) 北緯(南端 四〇度四七 / 北端 四一度二三)

著名市場人口表

邑內人口	一九九六名
極洞〃	九〇八名
永安〃	六九七三名

農村指導에努力하는 下加面長 董治明氏

氏는 일즉普校訓導로 多年間 勤務하여 育英事業에 勤勞하다가 昨年에 一般面民의 信望으로 下加面長에 被任되엿는대 氏는政治的手腕이 훌륭하고 農村指導에 極力活動하여 農村民으로는 完全히 更生의曙光을 보게되엿다하며 氏는 面民의福利를 爲하여 今後獻身的으로活動하리라함에 一般面民은 期待가 크다고한다 (寫眞 董治明氏)

金融界에重鎭 花臺金組理事 張衡球氏

氏는 今年四十七歲의 理財家로 일즉이 咸北道理財課에 多年間 勤務하다가 大正十四年에 金組理事로 被任되여 慶源新阿山明川等地를 歷任하고 再昨年에 花台金融組合理事로 轉任하엿는데 氏는本是性質이 溫厚하고 理財에明哲하여 組合의內容을充實케하며 農村更生에 注力하여 瀕死狀態의農村을 日益更生케하며 農民으로하여금 農村愛護思想을 扶植하여 明日의 農村에曙光을 비치게하므로 氏의農村指導에압날의期待가더욱크다 (寫眞 張衡球氏)

紹介版을내면서
明川支局長 李德在

羅連咸北의 重要地帶를占한 明川에잇서서 地方文化發展의 一助를 하고저 朝鮮日報支局을 引繼한지도 於焉間五個星霜이 지낫습니다。本是 無資格한者이지만

晝宵로어찌하면 우리明川을 文化的으로나 經濟的으로 보다더 發展을 시킬가? 焦思하여 나려오는 터입니다。그러나 支局을 引繼한 여섯해동안 한일이라고는 아모것도업는 만치 스사로 부끄러워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오직 나의 熱誠이 不足함에도 一理가잇겟지만 四圍의 情勢가 亦是그러케만드는것도 事實입니다 그리하야 항상이것을 遺憾으로 生覺하든남어지 엇든 機會부터 멧달을 바뎌가지고 우리朝鮮日報의 地方紹介版을 내는同時

明日의 明朗한우리 明川을 建設하는 우리地方의 人材와 全貌를 海內海外에 널리 紹介하고저 敢히 이번紹介版에 着手케되엿습니다 그런데 저의 最初計畫은 今番紹介版을 發行함에는 坊坊谷谷의 名勝、古蹟、人物、敎育、産業、모든 方面에빠처 現實그대로 하나도 빼지안코 滿天下에 紹介하려 하엿스나

制限된紙面이기때문에 結局 마음대로되지못함은 遺憾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未盡한 點은 다음機會로 미루어 언제나 다시 고루紹介할날이 잇슬것을믿고 讀者諸賢께서 今後로도 變함업는 指導와鞭撻을 日常애끼지마시어 저로 하여금 言論界의 使命을 다하게하심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特히 今般 地方紹介版準備에 直接間接으로 多大한 後援을주신人士에게 衷心으로 敬意를 表하는바입니다

明川郡下古面荷坪市 下古面漁業組合

明川郡下加面泗浦港 泗浦漁業組合

明川仲坪巾着組 咸鏡丸漁業事務所

明川黃津巾着組 黃津丸漁業事務所

明川花台市 東光酒造台名會社

明川花台市 花台穀物商組合

明川永安本町 朝鮮石炭工業株式會社御指定 合名會社 東光印刷所 振替京城九一四四番

明川花台市 東光酒造會社社長 許勳哲

明川郡下古面東湖洞 有志 黃河一

明川良化港 有志 金尙任

明川良化港 鰮油製造業 金扶天

明川郡上古面仲坪 鰮油製造業 張極崙

明川郡上古面鉉岩洞 鰮油製造業 姜今俊

明川郡下古面東湖洞 黃泰烈

明川泗浦港 廉東燮

明川郡上古面仲坪 鰮油製造業 玄春甲

明川郡農會長 全昌林

明川郡 思想淨化委員會

明川郡下古面荷坪市 崔在協

明川花台市 仁和商店 主 玄嘗圭

咸北明川泗浦邑內花台市 メリヤス 各種帽子 ゴム靴 吳服成衣 雜貨一式 廣信屋 主 玄鶴荀

咸北明川泗浦邑內花台市 綢緞綿布 和洋雜貨 東明商店 主 朴鳳翼

咸北明川泗浦邑內花台市 酒類販賣 各種運動具 ゴム靴一式 雜貨 藥品請負 李完洙本店 荷坪支店

明川永安市 キネマカフエ

明川郡上古面古津 鰮油製造業 李錫浩

明川郡上古面古津 鰮油製造業 崔明炫

明川郡上加面 私立三星學校

明川郡西面立石市 車鳳均

明川良化港 金永周

明川東面多津 金南松

極洞驛前 金秉默

明川邑 李浩正

漢拏山巡禮記

登山篇 (一)

漢拏山의 古義
『하늘』은 東方文化의 淵源

李殷相

새는날 이른아츰 出發豫約 東한 午前다섯時 오늘이야말로 今行의 最大目的인 漢拏山登跡의길에 오르는날이다。아무것보담도 맑은 하늘이우리一行을 安心케하야 가슴속에 幸福과기쁨이 물결친을 늣기면서 旅舍압한길에 웅성웅성나섯다 우리 一團의 行裝을 대신저다줄 고마운人夫들과 合하야 一行이 모두八十餘名, 隊를나누고 隊長을 選定하고, 이리하야 우리들은 無畏無懼의 든든한 軍隊가 되것이다。그러다。우리들은 저漢拏山頂의 崔嶷한 軍隊로서 故鄕을 차저돌아가는것이다。

여기서 山下를 向하야 南行十餘里까지는 트럭으로 갈수가 잇다하므로 우리는 秒刻을다투어 어서 그품속에가 안기려하야 트럭에몸정을실리기로한다 고요한 새벽거리를 빼기면서 쏘살가티 달리는 우리의 行軍 트럭은 돌길우으로 나르는듯하다。

바우마다 뜻과힘의 든든한자국을 길우에 印치면서 漢拏山 거룩한 날개미트로 달려가는우리드럼은 이대로 威谷의 우리들이 前日 여기 郡主牧使의 山興行次따위는 姓名도 업슬것이다。

漢拏山으로, 漢拏山으로, 아니 문득생각하매 우리가는길이 우섭지아니한가。漢拏山에서 漢拏山으로 간다는말이 무슨말인가。濟州島란것이 온통 漢拏山하나요 漢拏山 山밋가장자리를 도라가며 거기사람들이모여 무슨浦니 무슨面이니하고 사는것인데 실컨 漢拏山을 돌아다니다 오늘이야 새삼스럽게 漢拏山으로 간다는말이 무슨말인가。

이섬에 들어와서 부터는 어듸나 거기마다 漢拏山이니 가다가 서보아도 거기가 漢拏山이오 한바퀴 돌다보아도 또거기가漢拏山이오 저는 힘껏 버서나려고 숨어보려고 품속으로돌어가보아도 거기마저 漢拏山인데 우리는 이제 무슨이가튼어리석은할로 漢拏山을 차저간다 하는것인가。

아니 그런것이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다른 아무것보다도『하늘』의 故門을 들어서서『하늘』의 功德을 讚美하기로만 作定한다는點에서 漢拏山으로 간다함이다。

東方의 오랜民物이다만『하늘』에 根柢를두고 恩賴과 依支아래서 世世代代로 傳道되고 流布되어온것이며 하나로부터 百까지의 모든자랑과 살아온자취가 다만『하늘』의 그림자에 지나지안는것이므로 一切의 淵源이오 一切의 主宰요 一切의 樞機요 一切의 秩序이오 一切의 主軸이오 一切의 審판인 저『하늘』의 크고넓은 恩寵에 입히나아가 禮讚한채로그 宣命의 한끗트머리를듣고보고 純誠을 맛처드리려는것일따름이다。

그러므로 나는 漢拏山의 이름을 보시우리말로는『하늘山』이라부르던것으로 解釋코저하는것이다。

古人은『漢拏者以雲漢可拏引也』(東覽)라하야 雲漢을 만질수잇다는뜻으로 解釋하엿지마는 雲漢이란그것은 漢字以後에 그漢字를 說明하는것에 不過하거니와, 그漢字와 그說明을 그대로두고 볼지라도 거기『하늘』이란 原名을 볼수잇슴은 重言할것이업다。

또한 漢拏山의 一名을 頭無岳이라하는데『以頭峰平也』(東覽)라하야 그名號의緣由를 峰마다 扁平하므로 말하는것이라 說明하엿지마는, 이는 火山의形態가 그러한點에서 科學的으로도 一理엇슴이 아닌재로, 거기또한『하늘』과『頭無』『의뭇이 서로 連關되어잇슴도 이저서는 안될것으로 생각한다。

名字의表示야 어찌되엇건, 우리가 지금오르는 山은 거룩한『하늘山』이니 太古의民이 저를 信仰의對象으로 삼앗던것에만 뜻이잇슴이아니오 오늘우리에게도 저大自然의 神聖한 啓示가 우리一生을爲하야 어떠케나 滋潤의素가되고 生榮의資가될것인가。

진실로『하늘山』을向하야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은 幸福된날이 아닐가보냐。

(사진은 漢拏山眺望)

學藝

倫理問題의 새吟味
—現世代휴매니즘의本質— (3)

白鐵

요지음 우리文壇 作品에대하야 우리들自身부터가 커다란情熱과 興味를 늣기지못한다는것은 그作品의始作이 너무우리自身의 旣知旣明인 市井雜事를追描하는데 始終햇기때문이다 그것은 題材가

市井

乃至身邊事實에 關聯된것을 專혀非難하는것이 아니라그 雜事를 그대로 追隨해그리는데 리알리티—가 잇다고 생각하는 作家의 단순한 精神이 作品을 극히 俗된平面性에 떠러트리고 作品을 無味하게 만든다는 意味다 이點에 限해서 林房雄이『クソリアリズム』라고叱罵하고 崔載瑞氏가『안종방이文學』이라고 일홈지을때에 適切한 指摘이아니라고요 또한最近에와서 作家와 批評家가 서로背離되고잇는 傾向이 累次 指摘되고잇스나 그原因이 여러條件에 잇슬것이로되 그重大한原因이 今日리아리즘作品의 俗化에 잇다고 볼수잇지안흘가?

『와일드』의말에 依하야 나는이런것을 생각하고잇다

萬一

今日의 作家들이每日自己가 한바—그것은 作家뿐이아니라 누구나 旣知旣行의 事實을 그리는데 始終할것代身에 行하고남은곳 行하지못한部分에서부터 쓰기시작하면 今日리아리즘小說의俗化는 구원되리라고。또한今日 作家와批評家의 背離도 그것으로 原因은 消滅될것이아닐가라고。文學의리앨리티—는 生活의리앨리티—와는 正反對의世界다! 적어도 그와는 딴宇宙의世界다。생각컨대 도스토엡스키—가 그의書簡中에서 當時의 리아리스트들의 傾向에대하야그것을 現實百分之一의 리아리즘이라고 攻擊하고 自己의理想主義에도리허眞實한文學의 리앨리티가잇다고말한것은그런意味에서일것이다이것은文學者의德은오직

空想

하는世界에 存在한다는말이 아니라비록 世俗人間과 同

時同所의 가튼 日常生活의 經驗가운데서도 文學者는 普通人間의 經驗以上을 感得하는 곳에 그德을 말할수잇다는 意味에서다 그러기에 行하고남은곳에서부터 出發한다는것은 決코 지—드의有名한 聖書的命題『돌을化하야빵을만든다』는말과도背馳되는것이아닐것이다 여기서나는 다시와일드에 도라와서 그가 日常對話時에도 恒常說話의 形式을取하얏다는 이야기를 記憶하거니와 그와가티 旣存된事實을그대로 對話하는데退屈과 憎惡을 늣긴것, 그와일드의 文學精神을 나는니데로 曲解하야그가文學者로서 旣知旣明의 事實에대한 反逆의 精神이 잇다고

解釋

하고저한다 지—드에對한 와일드의影響은 지—드自身이 말하는바와가티 決코 적지안흔影響이아니어스며 어떤편으로보면 지—드는 와일드와 正反對의길을거른 作家이거니와 그지—드도『와일드』의 文學精神과唯一한共通性은 그旣存事實에 對한 反逆의精神이엇다。

바로 그精神 旣存旣知의 事實에 對한反逆의精神우에 文學의論理는 開拓되여온것이다 그意味에서 文學者는 언제나 그社會의 道德的反逆者요 그道德을보호하는 法에 대하야는

容納

할수업는 罪人들이엇다 그러나 이때에잇서 그罪人은普通罪人이아니라 도스트엡스키—는 그罪人과英雄을 同一한人間으로 보앗다

『온갓人類의……立法者와 建設者들은 모도가 새롭은法을 서작하야 지금까지 遵奉되든父祖傳來의 舊法을 破棄햇다는一事로서도 한犯罪者다—라고『라스코리니코흐』는 論述한다

—이런事實을 一言으로 말하면 사람은 어떤사람이든지 오로지 偉人만이아니고 조곰이라도 出群한人物 가령무엇이든지 조곰이라도 新奇한말을 한마한才能을 가진데 不過한사람이라도 自己의天性에依하야 不可避的으로 犯罪者가 아니될수업는것이다』

戰爭文學 (八)

平壤戰과 詩

湖岩

平壤戰은 三國時代에여러번 잇섯스니 百濟軍이平壤에 來襲한것과 唐軍이平壤에 入寇한것과 新羅軍이 平壤에 進攻한것 等이다。

여기平壤戰은 新羅軍의平壤進攻을 意味한것이다。그러나 新羅의平壤戰도 前後를로 區分할수 잇스니 平壤陷落以前에는 高句麗를 目標로삼앗고 平壤陷落以後에는 唐을目標로 삼앗다。다시말하면 新羅가 처음에唐軍을 協助하야 高句麗를 平定하고 그리고나서는 新羅가다시 高句麗遺民을 煽動시켜 唐에反抗케하고 그뒤로 슬그먼이 唐과싸웟다。

그런데 新羅의 平壤戰에 가장 著名한插話가 둘이잇스니 하나는 金庾信의 雲中에 祖肩進軍한것이오 하나는 그아들元述의 悔生不仕한것이다。

文武王二年일이다。新羅가 唐軍의糧餉을 運輸할새 이해正月에 獐塞(遂安)에 이르니 道路도 險阻하고 더구나 風雪이 嚴寒에 人馬의凍死者가 續出하야 더前進할수업섯다。將軍金庾信은 이것을 보고 크게念慮하야 六十八의 老齡임에도 不拘하고 몸소 露肩하고 馬를몰아 前進하매 그至誠에서 우러나온 勇氣에는 누구나 感動하지안흘수 업섯다。三軍이 모다 死力을 내여 제각기 나도나도하고 前進하야 마친내期日안에 平壤에 達하엿다。金雲養은 그著 東史韻記에 이것을 울퍼갈우되,

庾信輪唐餉。忠義激衆軍。
租肩風雪裡。辛苦獐塞遂。

獐塞는 上述한바와가티 黃海道遂安으로 當時平壤에通하는 捷徑이엿섯다。

그리고庾信의子 元述로 말하면 이로부터十年後인 文武王十二年일이다。이때 高句麗는亡하고 新羅가 唐軍으로 더부러 交戰할새 新羅軍이 平壤에서 唐軍에게 敗하게되엿다。大監阿珍含舍의父子는 橫載突擊하야 壯烈한 戰死를 일우고 庾信의子元述도 죽으려고햇스나 部下淡凌이 굿게 挽留하므로 죽지못햇다。敗戰하고 偷生함은 新羅國法의 許하지안는바로 元述이가 生還하매 그父庾信이 王께알외되 元述은 王命을 더러피고 家訓을 어겻스니 可斬할것이라 하엿스나 王께서 元述을 神將이라하야 重刑을버프르지아니하엿다。元述이가慚魔하야 敢히 그父께뵙지도못하고 집에서쪼겨낫더니 父가 죽으매 그母께 뵈려한즉母께서 역시拒絶하고 보지아니하므로 元述이가痛哭하고 太伯山에 드러갓다。그後元述이가 唐兵과싸워 功을세웟스나 終身토록 不仕하엿다。金雲養은 그東史韻記에 어것을 울퍼갈우되

戰敗平壤城。阿珍父子死。
元述恨圖生。終身不復仕。

★ ★ ★

濟州의 地理 ⑤
種種의特異性을가진

姜在鎬

五、牛馬牧畜의特異性

사람이나면 서울로보내고 말이나거든 濟州島로 보내라던 옛朝鮮俗諺에잇는바와가티 濟州島는 實로 朝鮮種良馬産地이다。實地로 가보니 소(牛)도 다른데못지안케 그頭數 四萬九百餘로 全朝鮮畜牛의 三〇퍼센트强을 占하엿스니 全國에 第一位며 馬匹頭數는 二萬二千餘로 全朝鮮總數의 四〇퍼센트强이니 全國第二位다。本島牧畜의 統計的地位는 이러하려니와 다시 牧馬飼牛의 由來를 살펴보면 傳說에서 본바와가티 그由來가오랜것은 事實일것이다 史乘에依하면 高麗忠烈王三年丁丑에처음牧畜을 始作하엿다 하엿고 元나라 達魯花赤이 牛馬數十頭를 다리고 朝天에 上陸하야馬牛牧場二十餘個所를設定하고 監牧官을두어 其下에 牛監 馬監의別官으로하야금 直接牧子를 指導케하야 官用牛馬를飼育식혀 良牛駿馬를多數産出해오다가 最近六七十年前에 官有牛馬는 民間에 配付하게되여 現在에일르럿다한다

다음牧畜地 即牧場으로 말하면 前記山間地帶가 大部分으로 現在 漢拏山을中心으로 二百米—三百米에서 傾斜變換線地點인六百米附近에 至하는 山腹帶狀草地(幅이좁은데는 四粁、廣部八粁—十粁의帶狀)가 放畜區域이다 그러나 이範圍를버서나 멀리는漢拏山絕頂 白鹿潭畔에도 一行이露宿하던當夜에 二十四五頭의 牛馬가 湖畔에 悠悠히건일고잇는것을보앗다 갓가히로는 海岸農耕地休閑地까지도 이들牛馬의 活天地이다。前述한 官牧時代에設定된 牧場은 六萬町步가되엿다는데 이區別은上緣森林地帶와의境界에는 上場城이라稱하야 附近에散在한 火山礫을주서모와石垣을城처럼 둘러쌋고 下部中間地帶와의交界에도 下場城이라하야 亦是 돌담을둘너쌋고 放牧牛馬의 他地域의 侵入을 防止하던것은 至今도尙存해잇다 最近에와서는 이石垣을 헐어도두어 大規模的으로 改築하엿스며 各登山路出入口에는 바다시 큰材木으로 格子型으로짠門을 만들어 큰빗장을 거러두어 通來하는사람은 自由로出入하게되엿스되 牛馬는 마음대로못나가게 되여잇다 洞里近處 休閑地放牧區에서도 이牛馬의侵入을 防止하기爲하야 石垣은勿論 꼴목於口마다 나무빗장을 맨드러둔것은到處에 볼수잇다。

林學洙氏詩集 『柘榴』祝賀會

新進詩人 林學洙氏의 詩集『柘榴』가 出版되것을 機會로 그文友에에분이 發起해서 左와如히 出版記念會를 연다는바 多數의來參을 바란다고한다。

一、場所 市外新興寺
一、時日 九月四日(土)午後六時
一、會費 一圓(當日持參)

山中雜記 (二)
—神溪寺에서—

崔仁俊

내가 留宿하는 그옷방에 約一個月前부터 와잇다는 平北 친구와 첫날로 人事하고 大凡한 世間事 이야기를 오락가락 주고밧는사이에 때칠이 못가서 아주百年知己인양 서로 親熟해젓다 그는肺病患者로서 昨春以來서울 某病院에 九個月間이나 入院한일이잇고 지금은 多少 恢復期에 들어가서 三防 釋王寺等地로 轉地療養에 힘써온다고 한다。

부억을 저녁면 회롱그러케만채로 노혀잇는 조그만방에 女子손님 한분이 게시다。過則 二十五六歲, 처음엔 그이가 女人인줄도 몰랏든것이 웨냐하면 난데업는 와이샤쓰와 꼴푸바지를 입으섯고 방안에 잇슬때나 或間 外出을 하실때나 依例히 머리에 登山帽아니면 밀집모자를 올려노코잇기때문이엿다。그래 산듯한 美少年이라고 하기에는 얼골의 輪廓이 지나치게 女性的으로 整齊되고 더구나 몸全體의 均衡이 婉曲하야 우리 凡眼에도 疑訝하게 뵈이지안흘수업섯다。二三日지나서 主人老長을 불러 은근히 물어보앗드니 果是 某處에 잇는 어떤 富豪의 妾이라하며 本室과의 不和로 世上을 悲觀하여 削髮入山하섯다는 놀라운 뉴—스이다。이 女人에 對하야 내가 俄然興味를 느끼엿다고하면 그것은 必是 내自身의 垂棄할만한 俗人的根性임에 不外할것이라 크게 삼가는것이 可當하다。世上事에 혀되好奇心을 이렬寂寞한山中에까지 끌고다님이 너무 부질업는짓인가 한다。

이집 老主婦의 料理法은 純全한 菜食主義로 一貫되여잇다 본대 佛法을 崇尙하는 僧家이매 朝夕饌床에 牛肉이나 生鮮이 오르기를 바라는것은 바라는사람에게 謨算이 잇는게라고 할것이나 이집 周圍에 돌가담러뱃을 일우워 두룸으이 손으로 손수栽培한 蔬菜만 가지고 一囍을 自足하려는 그自作自給의 實踐的精神은 正히 一驚에 値할만하다 蔬菜래야 별것업시 호박 오이 감자 풋나물等屬뿐인데 오이하면 오이한가지로도 국을 끄리고 김치를 담그고생채를 치고하야 끼니마다 벌려노흔 食床을 마주對하면 문득 佛法에 이르바 輪廻의 哲理를 味得해봄이 그럴법하다。

多少의 肥大症傾向을 가지고잇는나의 生理에는 이料難한菜食主義가 아주 십상인것이다。그러찬어도 될수잇는대로 菜食에 힘쓰라는 親切한 醫師의再三注意를 밧어오든 터이므로이山中에들어와서 뜻하지안코 精誠스럽게 履行해주는 老主婦의 뜻하지 안은 好意를 크게 感謝해야겟다。한여름 파리해저서 俗世界에 나가보도 愉快한期待의 하나이랄가—한데 내가애써 愉快한 期待의 하나로써가지려는 이點이 우리 肺病患者氏에게는 커다란 不滿의 原因인것이다。

그것은 余 나와 그肺病患者氏와의 生理와 體質에서 起因하는 避할수업는 利害關係이다。菜食主義가 나에게는『마이나스』的營養價値로서 크게 有効한데 反하야 肺病患者氏에게는『플라스』的 營養 價値의缺乏을 招來하는것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相反하는 利害關係의兩極端을 서로 固執할수박에업다

食事에 關한限 나는 그肺病患者氏와 共同戰線에 나설 아모런 必要를 느끼지 안기때문에 그가 單只 食事의 不便으로 숙舍를 옴기겟노라고 發說햇을때에도 그를 挽留하지못햇다 어데가도 避할길업는 人間利害이 우리의 멘칠간 交情을 그여히 壞裂시키고 말엇다

漢詩募集

題 秋夕
押 明
期 九月十五日

新刊紹介

◆朝鮮經濟時報 第三十九號(月二回)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一三九 朝鮮經濟時報社 振替京城二三二四一番 定價一部二十錢

趣味娛樂

閑散한演劇陣容과 철맛난뉴—스映畫
×東京興行界의近況通信×

事變勃發과함께 興行師들은 두가지의魔想을가지고잇섯다 하나는『軍國時局로만드러내면 넉넉하지』하는 業劃主義와『이것을機會로 演劇의 轉換이 오지나안나?』하는 悲觀說이 잇섯는데 每日每日擴大해가는事變은 演劇과演藝의 地盤을 몹시도 흔드러서 神經을 움죽이게하고잇다

그러나 八月의歌舞伎座는 中堅歌舞伎俳優의 好例인納凉興行、東劇은 常勝新派、언제는지 不景氣를모르는帝劇이엿는데 初日부터 七分의入場、中日지나서는 六分이라는 凄涼한現狀으로 東洋一의歌舞伎座도 파리를날린다고 한다

그래서 발演劇의赤字를 挽回하려고 書割만이라도 意外에도 느스演滿을내엿는바 歡迎을바더 演員謝禮、歌舞伎座가 五十錢均一、東劇이卅錢、明治座는 演劇은 全然쉬고 이것도 卅錢 淺草等地의 封切館보담도싸니까 五圓 六圓의演劇에는 緣이업는사람들도 집구경할겸 連日滿員을이루엇다

이러한中에서도 제일人氣가조흔것은各新聞 同盟通信의 뉴—스映畫와 新宿劇 外國映畫뿐인데 달니는新築地의『키노드라마』가景氣가조한든것은注目할만하다

同病相憐格인 『로미오와쥬리에트』
윈저公夫妻觀劇謝絕

前英帝『윈저—』公御夫妻는 最近『오—스트리아』에서『水의都』『베네티아』를 訪問하엿는데 그때맛침 同市에서는 水邊戶外劇場에서『쉑스피어』名作인『로미오와쥬리엣트』를 公演하게되엿는데 御夫妻는市長으로부터 보내드린 觀劇의招待를 밧게되엿다。그러나 바로 開演할때쯤되여서 公은 무슨생각으로 그래섯는지 突然히 觀劇을 하서지안켓다시는것을 使者에게식혀서 傳言하시엿다。그理由는『로미오와 쥬리엣트』는 周知하는바와가티 悲戀물 劇—마로 한것인만큼 公夫妻는이點을 考慮하신 모양가다고傳說되고잇스나 一般 觀客들은 그덕에 舞臺에서와 客席에서의두쌍의『로미오와쥬리엣트』를 보려고하다가 그만失望하게되엿다고한다。

케—블의肉體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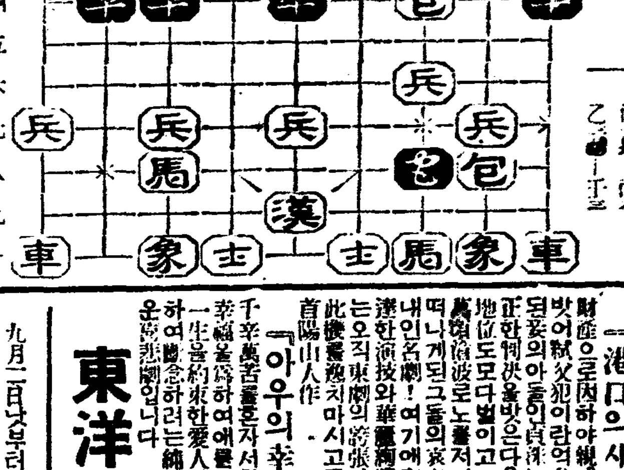
米國사람처럼 잘 떠들고好事하는나라도업지마는요전만해도 加州에서 베니스라고하는 시원한 海岸『마—디그라스』의 祝賀에서 映畵스타—를 漫畫化한 큰『마스크』가 하나식 등식 거러나와서 아주 大歡迎을바덧는데 그中에서도 傑作은 女子가 海水浴服하입고『크라크·게—블』의 마스크를 쓰고나오것인데 압가슴의 부푸러오른것이라든지보드라운脚線美는『게—블』肉體美百二十點。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一)

先手 李在鳳 對 許[illegible]

始局

十手圖



甲七兵—乙七
壬[illegible]—辛[illegible]
辛[illegible]—庚八
丙一[illegible]—丁三
辛八包—丙八
辛三[illegible]—辛八
丙八包—丙[illegible]打卒
辛八[illegible]—丙八
丙七兵—丙六
乙三[illegible]—丁三

라디오

四日(土曜)

◇午後六時 對話劇과童謠 一、對話劇 거북이、토끼、두꺼비 二、童謠 1、속임 2、달(尹福榮獨唱) 3、무지개 4、조히배(李明順獨唱) 5、댕댕이 天道敎少年會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指導 金中培 伴奏 林英子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가을에우는버레들』 嚴弼成
◇同七時三十分 時事解說 蘇支不可侵條約 咸尙勳
◇同八時 (旭) 아이누音樂 一、묵구리獨奏 二、舞曲 旭川近文舊土人部落民等
◇同八時一五分 軍歌工夫『日本海軍』 鈴美合唱團 指揮 李鍾泰
◇同八時三〇分 빠이올린獨奏 一、소나라 슈—벨트作曲 二、維也納의民謠 크라이슬러編曲 三、산송과파빠—느 크—프랑作曲 四、라이스의冥想曲 마소네作曲 피아노伴奏 桂貞植
◇同九時 古談 張志浩

第一放送

◇午後〇時 五分(東) 野球
◇同六時(旭) 童話劇
◇同六時二五分(東) 講演
◇同八時一五分(東) 皇軍慰問夕

五日(日曜)

◇午後一時 野球試合實況(國際) 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京城實業野球聯盟國防獻金試合
◇同六時 管絃樂 1、行進曲確信과 眞實…라이케作曲 2、行進曲 와싱톤의郵便車…스—자作曲 3、칼—王行進曲…운라—드曲 4、護國行進曲…스—자作曲 5、伊太利國王行進曲…가베티作曲 6、行進曲 永遠한忠誠…스—자作曲 7、行進曲 天動과번개프치크作 DK管絃團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普專講師 朴勝彬
◇同七時三〇分 라디오小說『달밤』—李泰俊作 沈影
◇同七時五五分 音律 靈山會相中에서 一、上絃 一、잔靈山、가락도도리 一、下絃 一、念佛、打鈴、軍樂 玄琴 李彦植

六日(月曜)

◇午前一〇時三〇分 料理製法『포—크찹드렛트』
◇午後〇時五分 (大) 하모니카合奏 一、라디오行進曲 瀨戶口藤吉作曲 二、組曲『어리광대이야기』中에서 페—르作曲 (가)어리광대춤 (나)어리광대소리 三、카—르王行進曲 운라—드作曲 神戶리—드·밴드 指揮 庵原要二郎
繼續 레코—드音樂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初秋어린이洋服짓는法(三) 任貞爀
◇同六時 童謠와唱歌 一、齊唱 고향의봄 二、齊唱순이무덤 三、獨唱가을 四、齊唱집신짝 五、獨唱젠터키—의옛집 六、齊唱자장가 七、獨唱조각배、꼿방석 八、齊唱참새의발자국 九、獨唱고향생각 十、齊唱어머님뵈오리 갈메기會 獨唱 金順玉 伴奏 白鵬管絃團 指揮 金致完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가을의花草』 李德鳳
◇同七時三〇分 講演 戰時經濟體制 徐椿
◇同八時 軍歌工夫 婦人從軍歌 奧好義作曲 鈴美合唱團 指導 李鍾泰
◇同八時一五分 倻琴散調와倻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倻唱 가、短歌 어화靑春 나、唱劇調 春香歌中廣寒樓景槪歌 丁南希 杖鼓 丁元燮
◇同八時四五分 漫劇 正法 男 金元浩 女 崔英善 虛榮女校
◇同九時一五分 一、關山戎馬 二、긴아리 三、打鈴 崔貞子 金秋月
洋琴 李承爀 美琴 金德鎭 短簫 崔壽成 細笛 嚴載雨 杖鼓 池龍九
◇同八時二五分 流行歌 一、그려면그대여(通) 二、南國의사랑(通) 三、四月南風(尹) 四、京城行進曲(尹) 五、六月의노래(通) 六、江南아리랑(尹) 盧影心 尹健榮 伴奏 DK管絃團
◇同八時五五分 唱劇調 一、短歌 楚漢歌 二、唱劇調 토끼타령 宋萬甲 杖鼓 韓成俊

第一放送

◇午前一一時五〇分(東) 野球
◇午後六時(東) 物語
◇同七時三〇分(大) 歌謠
◇同七時四〇分(東) 演藝
◇同八時五分(東) 琵琶
◇同八時三五分(東) 落語
◇同八時五五分(大) 浪花節

理智의女神 로렛타·영

이마와 눈과 뺨과 턱이 마치 數學的으로 계여논흔三시均衡과 整齊를 가추어서 얼골만 보아도 얼마나 理智的인가를 알수가잇지마는 氣品가티 곱히저 니ㅅ발! 아침이슬에 터진 牧丹꼿가튼 입설에서 새여나는微笑는 또한 가슴속에 감초운情熱을 익이지못하는때문인지?

八月三十一日부터 劇團豪華版 公演第三週
▲上演劇本▼
李雲芳作 『港口의새벽』(三幕五場)
財産으로因하야親戚들에게陰害를밧어獄父犯이라는억울한罪名을입게된者의아들이眞理는無罪放免의公正한判決을밧은다음財産도名譽도地位도모다버리고그의愛人과함께萬頃蒼波로노를저어理想鄕을차저떠나게되그들의哀史를如實히그려내인名劇! 여기에豪華한移動式裝置와華麗燦爛한演技는오직東劇의誇張하는바이다! 此機를逸치마시고꼭鑑賞해두시라
首陽山人作 『아우의幸福』一幕
千辛萬苦를 다格고서참으면서아우의幸福을爲하여애를쓰다가形에는一生을約束한愛人까지도아우를爲하여儀牲하려는純情하고도눈물겨운家庭悲劇입니다
東洋劇場

九月一日낫부터三日間大公開
松竹名畫特別鑑賞週間
每日晝夜三回公演
一回十二時、二回二時二十分續映
三回七時三十分始映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松竹大船社超特作全發聲
原作 曾我廼五郎氏
監督 齋藤寅次郞氏
現代名畫 この親に罪ありや
主演 坂本武氏、市村美津子 岡村文子、水島光代
松竹京都特作品全發聲
監督 岩田英二氏
江戶繪綸 女のまこと
共演 坪井哲、柳さく子 堀江淸子、中村吉松
松竹京都下加茂社特作全發聲
時代活劇 白虎隊
主演 國技莊之輔、平塚泰子
北支뉴—스特別上映
第一劇場 電光一七五五

4日より7日まで
眞實一路大會
前篇 父の巻 11·20 3·00 6·40
上海北支戰況 1·05 4·45 8·25
後篇 母の巻 1·15 4·55 8·35
全館開放 30錢均一
黃金座

空前의四大異色篇大封切
九月一日부터特別大興行!
米메도로포리단超特作日本版
名匠옷도로부로파—氏監督作品!
海洋復讐 暗黑의復讐
월니암화—남氏決死의猛演
이부사—산웨 랄푸인스氏助
東日大每撮影班決死의製作
北支事變記錄映畫 北支第一線
PCL超特作全發聲
山本薩夫氏監督作品!
お孃さん
霧立のぼる 淸川玉枝主演
北澤彪 山縣直代 助演
極東映畫特作連續時代劇
後藤岱山氏監督
まぼろし城 前篇
雲井龍之介 主演 妙蓮子 助演
本町 優美館 電光三九五

●九月四日낫부터三日間
每日二回始映낫一時밤七時四十分
大衆席料金十錢均一
▲米國마스코三特作全發聲映畫
大連續長篇大活劇
流線怪盜列車 中篇
熱血兒 쫀·웨인決死猛演
(第五、六、七、八篇八卷續映)
▲米國퍼스트映畫社特作映畫
冒險決死撮影R·O·키니大佐
全發聲日本語解說版
猛獸映畫의帝王篇
猛獸征服
(原名) 鐵地征服
▲極東映畫甲陽特作映畫
晴の鍔鳴り 後篇
劍豪 羅門光三郎主演
▲大都키네마特作映畫
現代喜活劇
拳鬪家と坊や
名物男 大岡怪童主演
往十里町 光武劇場

中部版

竹山面의國防獻金

【竹山】경기도안성군 죽산지방(安城郡竹山地方)의인사들은 지나사변이래 총후의열성을다하야 국방헌금을 계속적으로 이죽면사무소에 기탁하엿는데 각리대표의씨명과 금액은다음과갓다

二十五圓長陵里李[illegible]七外二十二人
十八圓長陵里沈[illegible]外四十人
二十五圓梅谷里鄭泳敏外六人
二十圓梅山里朴榮根外三人
十七圓斗橋里安九善外五人
二十圓長院里宋任[illegible]外三人
五圓李泰榮

長時滯貨를前提로 緩和對策研究懇談

鐵道、汽船、運送業代表者會合 七日、仁川商工會議所主催로

【仁川】지나사변발발이래에 철도의불통이수속되고 회차의부족으로 무역인천을위시하야 각지에파급되는영향은 실로상상이상의불편을보게되야 당업자간에서는 항상이를우려하고잇는바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만일이것이 종래계속된다면 당업자로서는여하한대책을가저야 할것인가 하는문제로 회의소역원과 철도기선운송등 각단체의대표자로서 오는칠일오후사시부터 간담회를개최하고 조사연구키로 하얏다는데 일반당업자간에서도 만흔연구를하야 제출하야주기를 바란다한다

伊川巡廻講演

【伊川】북지사변 돌발이후 점차로 상해중심으로 시국은 각일각험악화하야 가는이때 국민된의무와 내선일체로 시국극복에대한 지방민의 인식을 가일층 강조코자 이천군과 경찰서에서는 군내십일면을 순회하면서 시국인식 강연회를 다음과가티개최한다는데 시일과장소 연사는 다음과갓다한다

九月五日板橋面 九月六日方丈面 九月八日安峡面 九月九日東面 九月十一日熊灘面

演士 宋奎煥 崔弘吉 朴潤根 洪命植 關川謙太

仁川商工會서 職員總會開催

【仁川】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오는팔일은긴급림시총회를 개최하고 시국에 대한 화물수송과 국방산업진흥책등을 토의키로하얏다는데 당일의 의제는 다음과갓다한다

◇役員會

一、朝鮮商工會議所常議員會報告의件
二、朝鮮商工會議所緊急臨時總會招集에關한件
三、貨物輸送對策研究의件
四、其他時局對處方策에關한件

◇緊急議員總會議題

一、北支出征將兵慰勞에關한件
二、國防產業振興策에關한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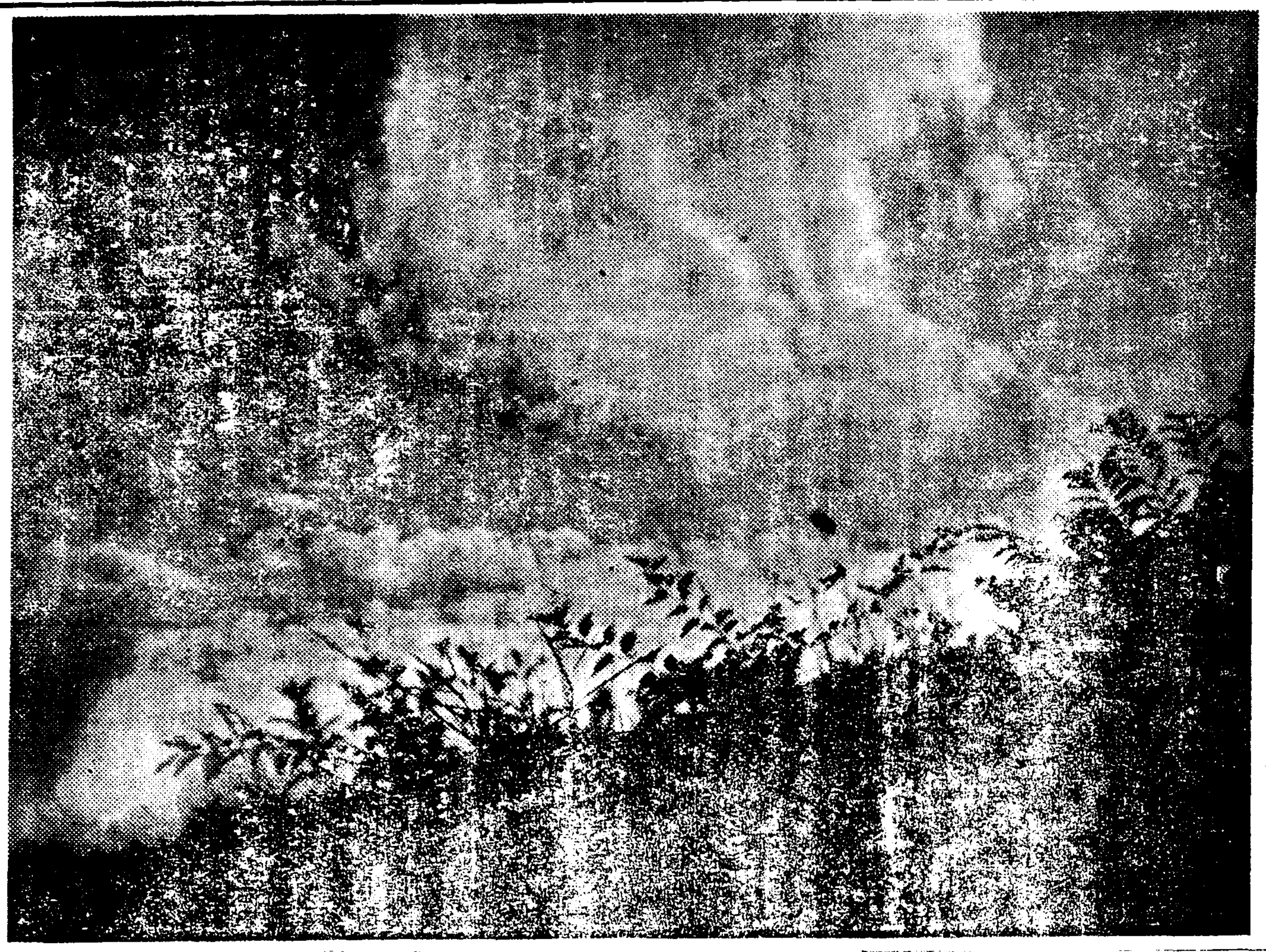
支那人의歸還으로 세월조흔人夫들

日收平均十圓乃至十五六圓 最近仁川驛의活況

【仁川】인천부내의 상인천과하인천양역의 역인부의 수입이인천최고관리의 월급에 부럽지안타는 듯기에도 배가부를만큼풍성풍성한 현대상──인천체류지나피란민이 오천여명이엿다는기록을 내이엿드니만큼 인천양역에 지나인 강객이 잡답하엿든것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사변으로 인하야 불경기이다 또는금융이막혓다 물가가폭등한다는이소동에 역인부만은 피란민의집으로 매일평균 십원내지십사오원에달하야 일대활기를 띄이고잇다는데 이를월로 계산하야보면 인천의최고관리 관측소장의상승사금의월봉사백육십원에 불업지안타는 재미스러운사실이라 한다

鐵原商界蕭條 支那事變의影響

【鐵原】철원이라면 강원도내제일부도(富都)로 단지산물은곡물뿐이나 별로불경기를 알지못하엿스나 금반시국에의하야 절박한불경기인데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군농회창고사건으로 근이십만원의다액을 식은(殖銀)에환부하게되엿슴으로 경기는 일층험악하야지고 금전대부 중지로일반상게에 매매(賣買)는 전혀중지상태에 잇게됨으로 폐업상태를현출하고잇다는바 이상태가그대로 일개월을계속한다면 진실로참혹한광경을 나타내리라하야 일반상가에서는 침불안석하



初秋의夕照……(議政府郊外에서)

姙婦를亂打 마침내落胎

【牙山】여자사명이 작당하여임신칠개월된 가튼동네사는 여자를구타하여 낙태케한사실이잇다 지난칠월경에 충남아산군염치면석정리(牙山郡鹽峙面石亭里)에거주하는김홍년(金洪連)(三四)과 홍태운(洪泰云)의처상모녀가 동리에사는 리선배(李善培)의처 성녀(成姓女)(二)와 사소한말다툼으로 임신(姙娠)된지 오개월이나된 한성녀를 구타하엿든데 전기한성녀는 구타를 당한이후로 임신중이든 충동으로압코오든바 지난이일에 낙태를하엿슴으로 그남편되는 리선배는이사유를 동아지 면주재소에 고발하엿다한다

爆發物使用에나타난 洪川郡의鑛山熱

大財閥도續續進出

【洪川】황금의보고로 조선으로 론 전일본에서 완연수위를점하리라는 홍천지방은 대재벌이점차진출하라는 현상인데 현재대규모로 경영하는 기다의광산이잇스며 채금량은 일개월수십만원이라는 놀낼만한 거액에달한다하며 칠월말현재로 광산에서 용하화약(火藥)이 오천오십구관 사백륙로메 리관(雷管)은 십이만 삼천백십오 도화선(導火線)이 삼십삼만이천구백십팔척이라는 거대한수짜에 달하엿다

金剛山探勝團

通川支局서募集

【通川】본보 통천지국에서는아래와가티 금번도보로 천막을가지고 자취를 하면서 내외해금강산(內外海金剛山)을 샅샅치탐승하고저 탐승단원을 모집한다는바 희망자는 기한전으로 속히신입함을 바란다고 한다 히 아라둘것은 준비상 정원수이상은 사절한다는바 신입선착순으로결정함을 아라둠이조타고한다

出發 九月二十五日 午前七時本支局前 探勝地 內外海金剛山 宿泊 野宿(天幕生活) 會費來談 申込期限 九月二十日限 定員 十名限(申込順) 歸着 九月二十一日合者에게通知함

土工三人의共謀로 人夫傳票를僞造

現金과交換濫費코被捉

【楊州】본적을 충북옥천군군서면 리(忠北沃川郡金龜里)에둔 리영기(李泳基)(三七)는전북남원군운봉면장교리(全北南原郡雲峰面長橋里) 리남규(三一) 부산(釜山)박모 삼인은 유현경부터 중앙철도공사제일구(中央鐵道工事第一區)인 양주군구리면교문리(楊州郡九里面橋門里)부근에서 토공에종사함을기화로생각하야 삼인이공모하고 인부전표를위조하기로하야 경성부옥천정(京城府玉川町) 일이칠번지삼오호 인쇄금이장외교원 유동현(劉東鉉)에게 사정을말하고 인부전표천장과 공사장에서 사용게중등통을주고잇다한다 하는 인쟁업무등 다섯개동위 里)에잇는 작화상에서 흥인을 조하야 이것을 지난 칠팔이십구일 상시상인이돌중안에 전표일백사십여장에 금액으로 이백여원을 위조하야 상인이 양주군구리면교문리(楊州郡九里面橋門里)에서 주색에 낭비한일이 탄로되자 양주서(楊州署)에서 이사실을 탐지하고 검거하야 목하엄중취조중이라한다 욕치되여 리사법주임(李司法主任)의손에 엄중한취조를 밧는중이라고한다

江原道面書記派遣 京都等町村役所에

【伊川】강원도지방과에서는 모든행정의 기초로되는 면사무의기초적쇄신을 목적하고 금번도내에서 특히우량면서기 다섯명을선발하야 일본내지의 우량촌사무실지견학을 한달동안시켜조선에도 선진우량정촌의 사무와가티 지행토록하고자 다음과가티 도내면서기를파견하야 경도(京都)나량(奈良)자하(滋賀)병고(兵庫)정강(靜岡)에 출장시켜각지당촌에게서 일개월간을 실지로 사무를견습하기로하엿다한다

◇派遣되는面書記 麟蹄郡麟蹄面書記洪世杓 襄陽郡襄陽面書記李漢榮 金化郡金化面書記金東奎 楊口郡楊口面書記李聖潤 伊川郡伊川面書記金斗炳

二日間의集金이 一萬三千圓突破

鐵原邑民의獻金

【鐵原】철원경찰서장 대서유일(大西由一)씨는 금반시국에 비추어 군민대중에게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을 고취하기위하야 몃번식 전군민을 모집하고 려설도하얏스며 특히시국에대한 선전『삐라』를 뿌려서전군민의 각성을촉하엿스므로 재일선에나서서 헌금을 모집함에 모집반원들의 열성도 대단하얏거니와 의외에 양호한성적을나타내게되여 이일 삼일양일간에모집된애국기(愛國機)의 헌금은 읍내만이 무릇 일만삼천여원에달하얏다는바 일반은 서장의렬성에 크게 감동되여잇다고한다

杜塞된北支貿易 打開策에腐心

【仁川】지나사변의 파급되는영향과한가지 지나무역이 일체두색되우 일반상게에 밋치는 타격이 적지안흔바 그중에도 건하(乾蝦)가튼것은 전연판로를 일어 저장한 상품이 부패하야바릴처지라하야 발서당업자들은대련(大連) 천진(天津)등지에 실지시찰을하야 방금판로를 개척중에잇다는바 이기회에도 인천부에서는 북지(北支)무역을 조사연구도는 개척키 위하야무역진흥회를 조직하고 방금사계에만흔 로력을 하고잇다는데이로써 북지무역 문제는 목첩간에타개되리라한다

地方人事

▲嚴泉尹相健翁 江華自宅에서一日午後九時五十分逝去

雙方이強硬하면 警察에서仲裁

仁川券番對料亭의紛爭

【仁川】인천가료리점과 권번간에는 시간대문제로 맛친내 부내에잇는 각료리점에 기생을배치아니하야 영업의 부진은물론 일반고객에게까지 강종의불편이 만라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지난이일에는 연회갓손님이 기생을다리고 부내모료리점에 갓섯스나 동료리점에서도 권번에서기생을 보내지아니함으로 계산할수업다함으로 손님들은 마친내 소위 『사랑노름』으로 이를노랏는것이 마친내 조합에서 문제가되야 전기와가튼노름에도나아가지못하게되야 권번과료리점싸홈에 기생들은 불공기속에서 또한설상가상으로 사랑노름조차못밧게되야 부내륙십여명의생활에만 가장큰위협을주고잇슬뿐아니라 쌍방의태도는 점점강경하야지고잇슴으로 이를인천서에대하야 그방책을못건대 다음과갓치 말하얏다한다

東海林保安主任 談

어제야 보고서를밧엇스니까 직자세한내용은 조사치못하엿스나 시절의관계로 수금이못되야 시간대를 보충금이나또는 조합료리대로써 상쇄식혀달나는것을 불응하얏다는것이 사실이라면 물론조합측이잘못입니다 시절이 시절이니만큼 쌍방이 원만해결하기를바라나 만일쌍방에서 강경하다면 경찰로써 중재치안을수업습니다운운

工場地帶永登浦에 本格的整地도在邇

三日、區畫整理所開所式盛大히擧行

舊邑事務所를修繕使用

【永登浦】칠십만부민대망의 대경성건설계획의 제일보로 본년오월이래 실측을계속하고잇든공업지대 영등포의 토지구획정리사무는 착착진행되여 임이 세밀한 측량을맛치고 근근가환지(假換地)처리에 드러갈모양인바이로써 본격적공사의 실시도재이(在邇)하다고한다 그런대 그사무소는 일시구시흥군청사무를 구읍사무소를 수리하야 사무소로 사용케되여 삼일오후세시부터 송도경성부총무부장(松島京城府總務部長)이하 관민백여명이렬석하야 성대한 개소식을거행하얏는데 렬석한일동이 착석하자 이등경성부토목과장(伊藤京城府土木課長)이 부윤을대신하야 경성도시계획은 가장중요한시설노 다대한경비를요하며 공사는 오개년계속 이천만원을소요한다 부내는 물론 신편입구역의 각간선도로의 시설을하게되고 딸어서토지구획정리도 삼개년계획으로 실시한다 그제일착으로 영등포의토지구획을 정리하기로 되엿다 일반이 주지하는바와가치 토지구획정리는 대단히 복잡하고 소유권을 가진사람들에게 여러가지 리해관계와 루롱끼지는일이잇스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장래는전혀 새로운도시가되여 훌륭한공업지상업지의시가가될것입으로 거주하실여러분은잠시참어주기를바란다 또경찰기타관공서 유지에게대하야서도 무엇인가루롱끼치게될는지도몰으니까 이점을충분히량해하야 만흔원조를 하여주기를바라며 완전한 사업수행을 하도록 하여주기를바란다운운의인사가잇슨후 부회의원 령목문조(鈴木文助)씨의 축사가잇슨후 간단한연회를마치고 폐식하엿다고한다

집에안가는안해의 왼쪽귀를切斷

犯人男便은永登浦署에

【永登浦】시내영등포정(永登浦町)이백오십구번지 리군일(李君一)(二五)의 무남독녀 리옥분(李玉粉)(二〇)은 연약한 여자의몸으로 영등포 창화공업(昌和工業)회사와 종방(鐘紡)여직공으로 돌아단기며 하로륙사십전의공전을 바더가지고 아버지리군일과 어머니 류춘남(柳春男)(四八)의 늙은부모를 봉양하여오든중 지난사월중에 리룡이(李龍伊)라는 사람의 소개로 시내양화정(楊花町) 강순복(姜順福)(二五)이란 로총각을 대릴사위로 친정를 늙어 죽기까지 봉양한다는 조건으로 결혼을하야 얼마를 살어오다가 강순복이는 [illegible] 맛아들로서 [illegible] 처가집 [illegible] 남편이중하다고할지 [illegible] 거절 [illegible] 라도 자기손으로벌어 봉양하든친정부모의생활이 차차 막혀버린것을보고 그대로잇을수가업서서 향상물안과공포에 싸혀잇든 옥분이는 이십일전에 친정으로잡가다가걸녀왓든바 남편강순복이가 삽입 처가집으로쫏차와서 가진 폭행을한남어지 저녁밥끔시경에 이르러 처되는 옥분이가 가치 안가면 귀라도떼여간다고 미리 준비하여왓든 예리한칼로 옥분이를 방에혼도케한후 왼편귀를삭잘나떼려트리자 동리사람들이소동하는바람에 영등포경찰서에알니게되여 즉시강순복은 동서에

長篇小說 花冠 【37】

李泰俊 作
金奎澤 畵

세화살 (廿一)

그러나 인철은 동욱의 색친에도 역시 무관심상태다. 가방을 꺼내주려 하지 안코 압쪽을 돌아보려니

『그럼 내 자리 잇나 가보구 오지오』

하면서 이쪽에서 뭐라고할새도 업시 섬큼 섬큼 가버린다.

『안즈랄때 안줄걸……』

하는 소삭임을 동욱은 남의것처럼 귀에 느꼇다. 마음은 또

『저이가 자리를 엇지 못하고 왓스면!』

도 시퍼진다. 그리자 차가떠나는듯 섯던사람들이 왈칵 아프로 쏠리는데 뒤에서 웬 뚱뚱보 마나님하나가 동욱을 밀치며 쓰러진다. 일어나더니 인철의자리를 보고어쿠웁 기여가야…

『아무데나 늙은것부터 좀안저야…원…』

하면서 자리를 차지해버리는것이다. 동욱은 자리임자기 잇다고 말하고시펏스나 늙고 뚱뚱하고 땀이 철철흐르는 마나님에게 그런소리가 나오지 안는다 이내인철이가 온다.

『자리가 거진 더업습니다』

한다. 그리고야 자기자리에 웬 마나님이 뚝 퍼더버리고 안저 부채질 하는것을본다. 그는 씩 우슬뿐이다.

『미안해요』

하고 동욱도 이번엔 우서보인다.

『뭘요 노인인데 잘됏지오』

하면서 인철은 마나님이 깔고안즌 잡지를 뽑아내여 펄치며 동욱이처럼 팔놋는데에비스듬이 걸터안는다. 모다들 동욱을 보고 인철을보고한다. 동욱과 인철은 더욱 이야기할 용기를일른다.

동욱은 소굿하고 이마의땀을 닥그며 생각한다.

『어떠케 이일 여기서 만낫슬가? 우연?』

황재하에게의 모든 우연보다 무슨의미가잇는것만 가터진다.

그러나

『의미? 무슨의미? 내가 패니하고 [illegible] 혼자 귀미테 뜨거움을 늣끼며 주위를 둘러보앗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힐긋힐긋 처다보고잇다. 남들이작고보니 손이더욱 심심하고 눈여밀며

『보시렵니까?』

리고 자기가 보던 잡지를 내못는다.

『실혀요』

『가방 꺼내드릴가요?』

『아니야요』

동욱은 그것도 해버린다.

두리는 도로 잠잠하고만다. 차가 석왕사(釋王寺)에 이르러서다. 아페 자리가 두울이 난다. 동욱과 인철은 마조 보앗다. 동욱이가 먼저 창가까이 드러안젓다. 인철도 잠작고 그여페 와 안는다. 동욱은 창밧글 내다보며 인철은 잡지를 보며 간다. 차가 고산(高山)에 다엇다. 모다 점심들을 산다. 인철도 시게를 꺼내보더니 잡지를 놋는다.

『벤또 안 사시렵니까?』

『안사요』

『어디까지 가시는지 여기서안사면 복게(福溪)까지는 파는 데가업습니다』

『그안에 나려요』

『네… 그럼 저나 하나 사겟습니다』

하고 인철은 창아프로 온다. 동욱은 뒤로 인철이가 안젓든자리에 올리난다. 인철은 찻물까지 사더니다시 자기자리로 오려한다. 동욱은 비키지 안는다.

『이리 안즈시지요』

『창여페 안즈서요 잘숫기 편하지 안흐세요? 반찬석건 노시구……』

『감사합니다』

하고 인철은 동욱의자리에 안저 벤또를 먹는다. 수굿하고잠간동안에 다 먹어버리더니

『이전 창아프로 안즈실가요?』

한다

『저 곳 나려요』

『삼방입니까?』

『삼방협이야요』

『네―』

하고 인철은 삼방이 가까워지는 창밧글 내다보다가

『혼자십니까?』

를 새삼스럽게 못는다.

醫學博士 中井先生 創製

性器絶對強化劑!

性慾學界의 大權威인
醫學博士中井先生께서
多年苦心研究하든結果
生殖機能絶對強壯劑ホルモーゼ
를遂發見創製함

老少男女를 勿論하고 人生幸福에 關心을가진사람은모름즉이 多年間研究하야 完成創製의大業에成功한性慾學界의하나밧게업는 大學者中井醫學博士의말슴을드르라。아래博士의말슴을記錄함(係)

研究創製者 中井醫學博士談

ホルモーゼ(For-Mose)는余의多年苦心研究의結果完成한純性強壯劑이다

ホルモーゼ는東洋固有의 哺乳動物의臟器中에서生殖腺홀몬의『엣센스』(Essens)를 化學的으로抽出하는데成功한것이다

ホルモーゼ의特長은 人體에잇서서의 生殖腺의內分泌作用을 亢進식히며 生殖器障碍를잘治癒식혀서 生殖機能作用을 復活旺盛케하는 同時에活潑한 作用을持續식히는데 偉大한 効果가잇는것을 發見하게되엿다

ホルモーゼ의 服用에依하야 性的不滿을 一掃하고 澀滯한元氣와精力을어더心身共히 完然히젊어지며 人生이再途春하야힘잇는 人生歡喜를把握하야써 人生의 幸福을滿喫할수잇슴은絕對로 밋어疑心치안는바이다

生殖器障碍에 苦惱하는者와 精力의增進을 바래는者는 男性、女性을 勿論하고반듯히 本劑의服用이 가장必要한줄안다 以上

青年 人生의最大幸福期에잇는青春時代에性慾不足性器發育不全早漏不能症生殖器故障陰萎等으로 男性은 女性의게 女性은 男性의게 서로 不滿을숨은 勿論이고 自己自身이 恒常快感의 幸福을엇지못하는 男女는百發百中

老年 四十以上에벌서 早老症이 생겨서 異性의단맛을못보고 늙는것만한탄하는분들은 服用二日이면 更少年의깃뿜을엇게되며 精力이強하야지고 記憶力이 強하여집이다

房事過度 로恒常머리가무겁고 記憶力이업서지며 頭痛이나고 憂鬱症이나고 神經衰弱이되는분은 服用하면할수록 完快하여저서 人生의 幸福을맛보게됨니다

人生이늙는理由 人生이 늙는理由는 體內에잇는生殖腺『홀몬』(內分泌)이減退하기때문이다 即다시 말하면 性慾이 減退하면할사록人生은 빨리늙는것이다 그럼으로 體力에『홀몬』이 充滿해잇스면靑春의幸福을 맛봄은 勿論늙지도안코 또늙은사람은 젊어지고 同時에 靑春時代와가티 人生의歡樂을맛볼수잇다 青年의體內에『홀몬』이缺乏함은人生의自殺과갓다 또산송장과 무엇이다르랴! 男女老小를 勿論하고 體內에『홀몬』의 補充이야말로生命線이다

服藥報告實例의一部

服藥二日재性慾이充滿 朝鮮平北慈城 金景瑞
生은三十一歲의 男子이온대女性을對하야도 아무 性感을어지못할뿐더러 無理로 性慾이、업는것을 女性을 關係하면 翌日에는 도머리가 무겁고하야 苦痛中이번貴所에서 頒布하는 中井博士의藥을 三日재服用하니 머리는깨끗해지며 性慾이 倍舊하여집니다 또六〇錠만곳보내주소서

房事過度로衰弱症이完快 朝鮮咸南惠山 李寬龍
저는房事가너무심하엿든關係로 終日토록머리가아푸고 其後도머리가 數日間式무거워서하는일도잘못되엿는데 十餘年을苦心하든次 朝鮮日報紙의廣告를보고 貴研究所에서 發賣하시는 中井醫學博士의藥 ホルモーゼ二十日分九圓어치를請求하야 服用햇드니차츰차츰머리무겁고아푸기가 完快되여서近來는아주머리가깨끗합니다 또一個月分을注文하오니 곳보내주시기를바라나이다

一週日服用하니마음도젊어저 朝鮮京城府城北町四六 柳喜暻
貴ホルモーゼ를 一週日재服用햇드니性慾이倍舊하여지고 四十이넘은나로서 心身共히 二十代의青年時代와갓소이다。其間은喪妻와 同房하면四五日은 氣運이업고머리가무겁고하드니 其藥을服用한지一週日이되니 全然그런症勢가 업서지며性慾만強하야집니다 붓그러운말이지만 同房이자저집니다 後日도注文하겟나이다

代理店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新井藥房
京城本町四丁目 木村藥房
釜山辨天町一丁目 大黑南海堂
大阪市東區平野町二丁目 丹平商會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心齋橋高島大藥堂
大阪市西區京町堀通り二丁目 小林大藥房

ホルモーゼ는어떤病에 百發百中인가 左記諸病에 百發百中이다 써보면안다

ホルモーゼ(FORMOSE)의適應症

(男性用)

陰萎(不能症)早漏、遺精、夢精、健忘症、生殖器發育障碍、兒童樣生殖官能耗弱短小症、性慾減退、早老症、更年期障碍神經衰弱、憂鬱症、自瀆障害、毛根發育不全에依한頭髮稀薄脫毛症等

注文方法 藥書로 申込次第代金引換으로곳보냄니다 藥價十日分四圓八十錢、二十日分九圓、一個月分十三圓先金注文은 送料弊研究所負擔、代引은送料四十二錢

東京市向島區東三丁目十六 國際ホルモン研究所 振替口座東京一五一九四〇番

ホルモーゼ

戰時體制 經濟整備 ④

國際收支問題
爲替管理强化一途

金資金法과 臨時資金調整法等이 實施되고 戰時體制中에서도 第一困難한것이 國際收支問題이다 이것을 어떠케든지 處理하지안으면 國內資金統制도 中心을 일케될뿐아니라 萬一 爲替市勢라도 下落되면 影響이 클것이다 그럼으로 貿易逆調는 北支事變突發과同時에 어데까지든지 一志二片의 爲替水準을 堅持할目標를 聲明하얏다 그런데 今年의貿易은 未曾有의 大逆調를 示하고잇다 八月下旬初出超三百萬圓이엇지만 그래도 入超累計는 七億七千四百萬圓이엇다 이미 輸入爲替의 許可制를 實施하며 金의 現送을 行하는等될수잇는限의 防衛手段을 取하여왓고 다시나가서는 去特別議會에서 爲替管理의 再强化를 行하는一方 金資金特別會計의 設定이며 産金法案의 防衛策으로서는 이미 非常體制가 施行되고잇섯다。

準戰貿易逆調

그러나 戰時라도 되면 또 스스로 問題가 달너진다 第一根本의 貿易이 平時와는 全然달너진다 그러라고하지만 今年의 貿易은 準戰時生産力擴充의結果 輸入의增加가 되엇는데 그러타하야도 準戰時가 戰時로發展되는만큼 貿易도 變하지안흘수업다 말하자면 機械類等의 時局關係品目의輸入이 顯著하여젓다 그럼으로 事變의 影響으로 對支輸出이 減少되엇스며 鐵、原油及軍需品 이新事態에 處하야 國際收支의防衛도 戰時的으로 再編成되지안흘수업게된것이다。

爲替市勢協定

그中에서 빨리實施되것은 爲替市勢의 協定이다 要컨대 市中爲替銀行이 自主的으로 協定하야 一定한市勢以外로는 爲替賣買치안는다는것이다 그 具體的內容은 如左하야 지난 八月二十三日부터 實施되엇다

一、對英賣市勢一志二片을 不下할것
一、買市勢의 標準은 三個月拂銀行信用狀付賣値 一志二片十六分一로할것
一、先物取引은 原則的으로 三個月以內로할것
一、對英市勢는 三個月先物까지 一律의市勢로할것
一、資金의調整을 目的하는銀行間의 乘換先物取引에는 適當한差額을 認할것
一、對英市勢以外의 爲替市勢는 對英一志二片을 基準으로 하야 適當히「레-트」를 決定할것

于先이러한 內容으로 外國銀行도 이에參加하기로되엇는바 全혀自主的 協定으로 違反한境遇의 制裁規定은 別로히 設하지안헛다 어데까지든지 各銀行의 自制에 期待하려는것이나 勿論 大藏省의 監督의 눈이번적일은 勿論이다。

協定必要理由

그런데 웨이런 協定이 必要한고하면 正金이 如何히 爲替水準維持를 爲하야 對英一志二片賣를 斷行하야도 市中銀行이 그以上의 市勢를 세우면 아무것도아니다 그것도 國際收支의 狀況이 조흔때면 몰나도 지금가티 모든것이 逼迫하여 오면 적은 差라도 針小棒大로 되거 쉽다 그러므로 協力하야 一本市勢로하고 이와카티 市勢는 堅持하다는것을 內外에 示하는것이 必要하다 이런理由로 最初는 爲替市勢의 公定이나 協定이나하야 여러가지로 討議되엿는데 結局 우선自主的協定으로 하는것이 妥當하다는 結論에 이르럿든것이다。

爲替管理强化

그런데 잘생각하여보면 爲替市勢의 公定은 도리혀 第二義的의것이다 實勢를 反映하는 市勢임으로 根本的의 國際收支 그것이 改良되지안코 協定하야도 無意味하다 이에잇서 爲替管理의 再强化가 問題되다 現在政府는 臨時議會에 다시 外國爲替管理法의 改正法案을 提出하기로되엇다 外國爲替管理法은 昭和八年에 實施以來 몟번 改正을 繼續하여왓음으로 管理의 網目은 저못 細密하게되엇는데 그러치만 아직도 放漏가잇다 이번의 改正도 아직 그 大綱의 改正이고 主眼點은 日本人이 外國에가지고잇는 資金을 活用하는것이다 現在도 外貨債券이나 外貨로서 表示하는 債權債務의 取得分은 制限하고잇스며 또는 讓渡에나 處分은 自由로 되어잇다 그러므로 이를 取締하려는것이다 要컨대 外貨를 가지고잇스면 結濟될으로 流通하려는것을 防止하는것이다。

在外資金管理

이번의 改正은 다시 이에만 끄치지안코 在外資金을 物로 [illegible] 境遇에 依하야서는 許可制로 하야 强制로 賣却케할수잇도록 하야 [illegible] 에對하야서는 自由히 [illegible] 되엇다 現在는 物이나 資金에 對하야야 [illegible] 流出될수잇음으로 이것을 防止하는것이다 [illegible]

不急品輸入統制

[illegible] 輸入統制 [illegible] 輸入하려는것이다 [illegible] 爲替管理에서 [illegible]

資金統制下의朝鮮經濟界異狀
紡績、人絹工場等 朝鮮投資도中止
新體制下事業界變革

投資統制法及 最近의 顯著한 信用收縮의 動向은 朝鮮에의 事業投資를 特殊事業以外 全然 萎縮케하야 現實的으로 目下로서는 何等의 制限도 受치안흠에 不拘하고 各事業者側에서 이를 念慮하는者 續出하야 現在 紡績、人絹等의 工場計畫에잇서서는 統制外 朝鮮을 目標한 工場進出은 말하자면 不急投資를 日本레이온、倉敷絹織、大陽레온及 紡績은 日本紡의 水原等은 各히自然的으로 工場建設을 躊躇하는 傾向을 示하고잇다 三井系의 朝鮮레온에서는 이미 會社設立을 뽑 關係로 建設實行의 方針이나 新體制에의 移行을따라 相當한 變革을 未免하리라고한다

鮮殖銀融資問題
東京서 加藤有賀折衝
日銀對興銀方式?

鮮銀의殖銀에對한 融資問題는 目下東京에서 加藤鮮銀總裁、有賀殖銀頭取間에 折衝되고잇는바 殖銀의希望으로서는 今回 生産力擴充資金의 圓滑한疏通을 圖할目的으로 決定한興銀과 日銀과의金融方法 即興業債券의日銀引受에依한 發行과 同樣한方法으로 鮮銀의 殖産債券引受에 依한金融을 希望하고잇는바 從來의 取引대로 期資金은 殖銀으로부터 借入하야 資金을 調達하려는 方針으로 東京의 折衝은 多少의 曲折이잇다 하더라도 結局어떠한 方法으로 結果를보게되리라고보인다

産金令 七日公布

日本內地의 産金法에 對應하야 朝鮮의特殊事情도 考慮하야 더옥産金獎勵를 强化한 朝鮮産金令은 去三十一日의閣議에서 正式決定을 보앗스므로 總督府殖産局에서는 그公布準備를하야 七日制令으로 公布하기로되엇다 그런데 同令의施行規則은 目下審議室에서 審議中으로 十日頃에는 公布될豫定이다

一千八百五十八圓九十一錢으로 七月中에 比하야 九名 三十一枚 二萬五百五十圓의 增加를 示하고잇다

株式金融拒否 全然誤傳!
殖銀野口理事談

當行의 取引先인證券業者도 國策에 順應하도록 懇談하고 株式金融은 今後限度擴張等은 困難하며 徐徐히 減少하야 할것이라고 말한것을가지고 어떤證券業者가 自己의 손님에게 對하야『殖銀이 貸出을 中止하얏다』云云하는 虛傳을 하야 一時的이라도 株界를 衝動한데문에 그것이 傳한듯하다 市場人氣를 動搖케한것은 遺憾이다

殖銀異動

殖産銀行에서는 三日付로써 如左히 異動을行하얏다

▲龍水支店長代理網戶雄一 命商業金融課長代理 ▲大邱支店 小西灝一郎 命龍水支店長代理 ▲商業金融課長代理 對村豊二 依願解職

證券所持減少

八月末現在의 京城組合銀行有價證券手持高는 一億六千五百九十二萬圓으로 八月十五日現在에 比하야 八百二十七萬八千圓의 減少

資金難全面化
地方都市에波及
輸送不圓滑도重大한原因!
商品移動難、換金難

府內의 金融難은 旣報와가튼바 이를따라 地方의 金融逼迫은 一層 速度를 加하고잇는形便으로 各主要都市로부터 地方都市에 至하야 金融難은 全面的으로되게되엇다 特히 地方關係에 잇서서는 輸送不圓滑에 基한 商品移動難 換金難이 深刻을極하야 困難은 日益濃厚하야지고잇다

念慮되는米穀金融
低資融通도問題

今年의 米穀資金은 豐作豫想으로 그資金需要는 激增하리라고 보이는데 輸送機關의 支障、特히 船腹不足은 只今부터 容易히 想像할수잇스므로 金融業者로서도 朝鮮米輸送의 不圓滑에依한 米穀金融의 前途에對하야 深甚한 念慮를갓고잇는一方 米穀應急低利資金은 資金統制法의 發動이잇는境遇 例年과가티 支障업시 受入할수잇슬지 疑問이어 金融業者는 이에 對處하고저 一兩日前부터 支店長會議를 地方別로 開하고 對策을 講究하고잇는데 秋收期接近을따라 米穀金融은 드듸여 問題化하려하고잇다

事變影響으로 手形交換激減

八月中의 京城手形交換高는 十二萬二十枚 交換金額八千七十六萬一千九百四十圓으로 前月中에比하야 一萬四千六百十九枚、二千百四十四萬九千十九圓의 各其激減을 招來하얏는데 右는 輸送制限 其他事變에 依한 影響으로 商取引이 減少에 基한 것이라고 보인다

	枚	千圓
今年八月	一二〇、〇二〇	八〇、七六一
〃 七月	一三四、六三九	一〇一、六一〇
前年八月	一三〇、六九九	一〇七、〇三〇
前前年八月	一二六、三五〇	八八、八二〇

不渡手形增加

八月中의 京城手形交換所의 不渡手形은 小切手 約手 爲手合하야 七十九名 百四十枚 十萬六千

週間大勢

株式

株式市場은 市場對策이 奏効하야 于先安定의氣色을 보히엇섯지만 아직期待될만한回復을 示하지못하고 다시흔들린다 現在의買方은 輝株로 十圓乃至二十圓이 떠러진것이 相當히만치며 그우에 拂込資金에 逼迫할뿐만아니라 時局多端의此際 積極的으로 買할수업는까닭에 躊躇하나 외면 生保側其他有力側이 사려고기다리고잇다 東京市場取組의狀態도 問題의當限은 떠러젓스며 短期는百萬株臺를 깨드리고 長期도極히少數의 取組로되어잇슴으로 여간한不測의 惡材料가 出現하지안는限 이無制限 連續崩落의市勢라고는 보기어려웁지만 就中九月限의 因果株가 處分되지안흐면 아직前途를 거듭하리라는 觀測도잇는데 萬若이投崩이잇다고하면 거기를사서 秋高를 기다리라는 氣氣도잇다 要컨대 高價로사지안는다고하드라도 押目을사려는 人氣는 徐徐히 積極되고잇는感이잇다

期米

上用來의 好順氣候로 內外地米의 豐作人氣는 旺盛하야 新甫는 下輔發會後 一段高 이고나서 二百十日無事로 崩落되엿고 其後少戾이엇는데 二百十日은 無事하엿스나 八朔 白露 二百二十日 彼岸等의 大厄日을 앞두고 本格的天災期에 直面하고잇슴으로 天候如何는 가장重視되는 同時에 臨時議會에 提出되는 軍用米買上의 特別法에 對하야도 적지안흔 關心을가지게하며 今後天候를 中心으로하는 强弱戰은 相當히 波瀾을卷起할것으로 보인다

綿絲

綿絲는 連騰되여 新價를 내엇는데 貿易管理에 伴한 入難은 年內 所持棉의 原棉의 輸入難 不足에 依한 紡績의 自由操短을 豫想하면 다시 一段高가 豫想되는 市場이다 米棉의 豐作이나 國內의 實勢不振은 此際問題가안된다 다만棉花보다 綿絲에 의投機人氣가 强함은 다툴수업는事實이다 今春의 熱狂的市場만큼은 勿論期待키 어려우나 二百六十圓說이잇다 그리고 此邊 暴利取締令 發動도 念慮됨으로 여기에서 買方은 利喰할順序이라는 人氣이다

生絲

新甫一月限은 七百八十一圓으로 發會하얏는데 事變은 上海方面에도 波及되야 日에는 七百六十九圓의 低價에까지 低落 現物도또 八百十七圓五十錢까지 叩되어 오래待機의 姿勢를 堅持하여온 直輸一般의 出動을 보아 連日好轉을 보앗슴으로 月中에는 八百六十圓까지 買進하야 不振을 持續하는 것은 이미決定的이라 보는 傾向이 强하다

人絹

實勢의 不振과 人絹聯合會의 机上案實効薄으로 買하기를 避하는 來年四、五月까지되야 跛況

今日의市勢 (四日)

株式 波瀾一過 低迷

前場低迷 昨後場反撥大引後 今朝는 東新二十錢高의 百三十二圓四十錢 鐘新二十錢高의 二百三圓三十錢、大新七十圓八十錢保合 朝新二十錢低의 二十七圓二十錢으로 寄付後 臨時議會의 戰時統制、金融의 惡化等을 憂慮하야 嫌氣賣、處分賣續出로 低迷商狀을 呈하야 結局 東新百三十一圓十錢 鐘新二百圓十錢 大新七十圓七十錢 朝新二十七圓七十錢으로 맛치고 後場은 例休

事態益重大視

駐日英大使 赴任初의『스레-트멘트』는 日英親善을力說하얏다 그러나支那에對한 利權對立이잇고 上海中立地帶化를 提唱하는英國의뱃장으로 얼마만한好意를落할는지가 疑問이오 蘇支不可侵條約成立後 支那의 蘇聯으로부터의 軍需品輸入 人民戰線統一에依한 對日持久戰準備等을 推想하면 事變이 언제끗날는지 豫測키어려운일이다 이와가티長久化하면 戰時體制는더욱強化될形勢에잇서 一般經濟界의活動이 鈍하여질것으로 株式界에미치는 影響은 莫大할것으로보히어 金融動脈인 株式界에 全般的으로 [illegible]

金融動脈硬化

[illegible] 賀屋藏相은 金融緩和策에 對하야 發明을 發하엿다 그러나 支那事件費를 合하면 今年度五十四億의 膨脹豫算에도 不拘하고 金融은 極度의 動脈硬化에 있으며 公債消化難 增稅 輸出入統制强化等은 不景氣를 深刻케할것으로 [illegible] 爲始한 主力株其他株의 買氣缺乏하고 嫌氣賣이나 山積의 狀態를 演하야 去益人氣의 萎縮을 보고잇다

國債不勢 換金賣急

[東京電話同盟] 金融梗塞狀態로 小亂이나 換金側의 賣物이 잇서서 內債는 五錢乃至十五錢가량 續落되고 四分半과 如한것은 前日額面을 깨드리고 低價로 保合 佛貨債는 五錢低로 下落 米貨債는 賣買가 업슬로 사서 大體一、二圓低를 唱하얏다

期米 過賣反動 暴落

前場暴落 今朝는 前日後場의 反動으로 三十圓二十錢으로 [illegible]

地場은買贊成

昨今阪地 [illegible] 仁兩地의 仕手關係를 보면 阪地는 馬越老의 買贊을 [illegible] 山崎의 中의 先兩限에 [illegible] 支那의 好調를 [illegible] 인데 小口筋方의 買物이 加하야 더욱上勢를 [illegible] 良하였스며 地場의 買贊成으로 當地亦中先兩限을 [illegible] 較的强調를 續하는中이다 又論阪仁兩地의 仕手關係를 보면 [illegible] 材料로 보아서는 買贊成 하는 거시 妥當하다고 할수잇스나 目前의 豐作을 보고서는 無理한 買가 成立되지 안흘수업다 [illegible]

昨今阪地消息

昨今阪地 消息에 依하면 馬越老의 買玉을 비롯하야 山崎一派와 中東別派의 中先限買進과 따라서 提燈側의 買物이 續出하는등 押目買物이 流行하야 二百十日의 樂觀材料도 好結果를 엇지못하고 畢竟急反撥을 示하지 안으나 아직天災의 憂慮도 업지안커니와 豐作豫想의 實氣도 無히 一巡하고 來月方針을 捨할수업다는데에 事實 買하는 모양이다 即時作

仁川下支

漸次人氣가 올녀오 이기始作한此際 日本內地로부터 指値入往가 잇스며 各地期米의 落調이나 適當히 下支되엇고 現物은目前 出廻期一期의 出廻를앞두고 格物十錢低에 下支되엇스나 關係로 으로 三、四十錢가량 奔落 休日을앞두고 相當히 實物이엇다

釜山保合

依然 產地는少

數	良	[illegible]	[illegible]
銀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多摩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等白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市場六感

(株)…昨後場當地東新百二十五圓九十錢、鐘新百九十四圓丁은 너무지나친市勢 ▲株式市勢의騰落 高下아뎌구나 持의大勢 ▲內外根本的大材料가 어떠할지 모르는만큼 ▲戰局의現狀、現實的强弱論을세울수업는판 ▲戰局의 當面生息 豫測할수업고 國際關係의複雜化 統制經濟의成功與否等等當局의 判斷을 내릴수업스니 株式의高下야 더구나 打診을 不許 ▲이런때는 觀望이 暴落에 막기는수박게 無途哩

(米)…豐作의 豫方針을 나려한즉 環境이 妨害를하고 環境의好轉을 買하려한즉 豐作이 또한 阻害 ▲그래서 市勢는 豐作과 環境良好의 五分五分의 强弱材料를 가지고잇는 만큼 騰落兼分▲今議會에 臨時特別會計로서의 軍事費二十億圓案이 通過될것은 勿論이나 二十億의 公債를 發行하기로 되엿스니 銀行側이아니면 民間側이 引受하게될모양▲그러케되고보면 實際의 財界影響은 어떠케될지 前途難測▲換金 近 銀行其他 金融機關에서貸出을 警戒하게되면 民間金融의逼塞은 可知(寧山)

正米 保合 各地區區

京城不勢 各地期米 反復 前場 市場은 目前豐作一期의 入荷를앞두고 構米의不賣 反落을 앞두고 市勢는 上足 不賣으로 人氣 十錢低가량 賣物續出하야 市勢 二三十錢으로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中限 ◆賣方 先限

[illegible]

大邱不變

期米 前落步調 强狀을 [illegible] 今朝定期의下放으로 市場人氣도 떠러지고 精米側의 必需買가 數見될 뿐이며 因三一、二〇 三三、一〇 一等白米 一三、八〇

群山軟調

群山 實物 今朝期米의 落調에 日本內地大口入荷期待薄으로 人氣不振이며 市勢도 十錢低로 軟調를 示하얏다 ㊥三一、五〇 一等白米 一四、〇〇

木浦强調

市中依然 實物이업고 出廻者無이어서 市中不圓滑로 各地期米急反落을入하얏소나 一向反響이업고 休日을앞두고 地場必要側의 買漁가잇서서人氣도리혀 强調、市勢도 十錢가량 上走의 商强味를 示하얏다 ㊥三一、八〇 三一、五〇 一等白米 一三、五五

今日財界圖 (四日)

◆米 (單位錢)

	今日	比前日
仁川期米先限	三三、二	一九低
大阪期米先限	三二、九九	三五低
一等米一石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不變
一斤價三等	[illegible]	[illegible]
고무신(大)一足	六〇	不變

◆株 (單位十錢)

	今日	比前日
朝新	二七、二	一低
東新	一三二、〇	一高
鐘新	二〇三、〇	一低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	比前日
綿絲	[illegible]	[illegible]
棉花	[illegible]	[illegible]
人絹	[illegible]	不變
砂糖	[illegible]	不變

京城物價 (四日)

▲白米(石、單位圓) 多摩錦特、二六五 一等二五五
▲麥粉(二二斤、單位錢) 二圓四、六〇 카메리아八、〇〇
▲肥料(一〇貫、單位錢) 滿安 (各興波) 一一〇、九五
豆粕(安東產一等)枚 一二〇、六〇
過燐酸石灰(仁川沖) 一一〇
▲紙物(單位匣) A模造紙(一斤) 一四、〇〇
中質印刷紙(同) 一一、六七
半紙綿因州手紙(束) 一〇、〇〇
朝鮮馬糞紙(束) 一三、〇〇
▲燃料(一噸、單位錢) 撫順石炭 塊 一九、二〇
同 粉 一、二〇
京城瓦斯木炭一等 (二〇斤) 一、五〇
▲洋紙 (五〇斤袋、單位錢) 小野田 一、〇八 淺野 一、〇八
▲砂糖(白斤、單位錢) 白 一三、四〇 黑 一四、三〇
分蜜 一八、八〇
▲穀物(單位錢) 朝鮮引中板(枚) 一一、九〇
丸釘 一吋(樽) 一七、四〇 一一、四〇
黃麻布六番一〇貫 一〇、九〇
丸鐵二分(同) [illegible]
▲海產物(單位錢) 乾明太(駄) [illegible]
乾大口魚(斤) [illegible]
암 치(手) 七〇、五〇
長 鱈(手) [illegible]
▲果物(箱、單位錢) 蘋果 紅玉 [illegible]
▲諸穀(單位錢) 白米上三等 一、一〇
▲雜貨 外나스日東印(一函) 一、一〇
에나멜제소지色(一本) 一、二〇
木材(寸、單位錢) 紅松 一、三五
杉材(普通) 一、一八
라왕 一、一四
▲本明太(尺、單位錢) [illegible]
▲人絹(單位錢) 文化綢 一、四
▲毛絲羅紗(單位錢) [illegible]
▲牛皮(乾皮斤、單位錢) 京大皮 五、〇〇

株式 (◆朝取短期◆)

	前場寄	前引	高值	低值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拓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短期主要取組高◆ [illegible]

◆鑑定代引日步◆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引◆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綿絲 ◆大阪綿糸◆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現物糖(ST) 賣買中價二一・七五錢
◆東京砂糖◆ [illegible]

海外經濟 (三日)

[illegible]

銀行券 (三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金買入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紡織製品◆ [illegible]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麴油粕・麥粉

◆阪神麴粕◆ [illegible]

◆阪神麴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期米 康益夏 仁川

趙俊鎬取引店 仁川 米豆取引所前

期米 仁川本町 吉村榮左エ門商店

金・銀 德 白金
高價買入 京城德力 電話本局② 3939 1572
應酬賣販換引金代 京城府明治町 振替京城234